

제20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4학년도 2학기 학습법 소모임 [교과스터디]



우수팀 명

포천의료원 혁신 전략 마케팅팀

학습 과목

지역사회 보건복지와 ESG

학습 기간

24. 10. 15. ~ 11.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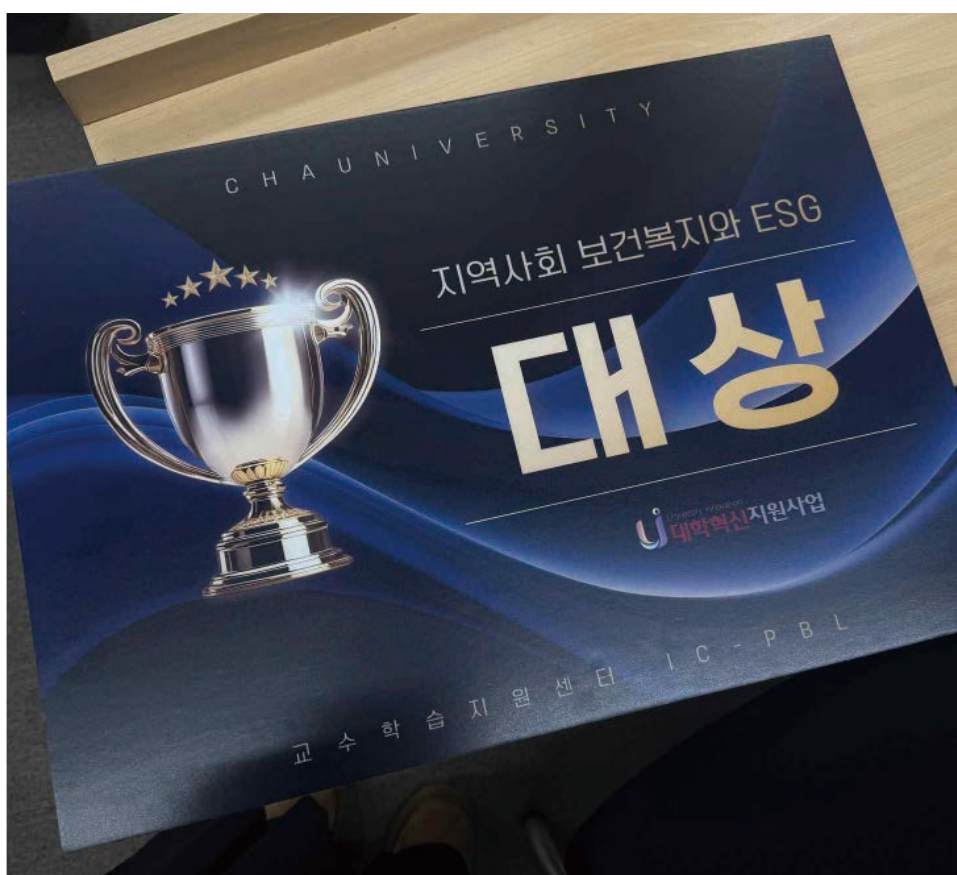
팀 원

임사랑, 박윤지, 권서현(AI,보건의료학부 22)
김대현, 김건형(AI,보건의료학부 20)

학습 일정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0/15	16:00~17:00	학교 강의실	포천의료원 질문지 초안 작성 포천의료원 방문 인터뷰 전 질문지 작성을 위한 브레인스토밍과 토의
11/12	16:00~18:00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포천의료원 부서별 직원과 인터뷰 진행 포천의료원 방문 후 인터뷰 진행 후 포천의료원에 대한 개선사항 분석
11/22	17:00~18:00	ZOOM	담당 교수님과 회의 후 목표 구체화 포천 병원에 필요한 것이 어플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주제 확정 해당 주제를 위해 필요한 자료조사를 다양한 유사 어플 기능 등에 대한 사전 조사 계획 및 분담
11/26	16:00~21:00	학교강의실	주제 선정, 주요 타겟층 설정, 어플 유지 방안, 어플에 포함할 기능,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추가 조사 사항 그리고 역할 분담 등에 대해 논의하며 구체적인 방향성을 설정하는 시간을 가짐.

활동 사진



활동 소감

▶ 종합 의견

공공의료기관인 포천병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지역의료의 중요성과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사례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분야의 실무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공공의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팀원들 간의 의견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협동심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각자의 전문성과 아이디어를 최대한 반영하여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경험은 매우 값졌습니다. 특히 마케팅 전략과 앱 기능 설계 등의 논의에서는 실제 사용자를 고려한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을 배우며, 사용자 중심의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도 넓혔습니다.

이 소모임 프로젝트는 단순히 과제 수행에 그치지 않고, 우리 각자에게 실무적인 경험과 함께 자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조원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임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얻은 배움과 성장은 앞으로도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 김건형: 평소 병원에 대한 조사를 주로 대형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해왔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자세히 알게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사 중 포천에 대한 지역의료에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하지 않은 공공의료기관임에도 많은 활동과 서비스를 통해서 끊임없는 노력과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에 큰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과제를 통해 병원원무, 병원행정 등 같은 진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꿈에 대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김대현: 지역의료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었지만 본 과제를 통해 포천의 지역의료에 대해 관심을 갖게되는 계기가 되었다. 직접 포천병원 관계자분들께 질의응답하며 본 과제에 더욱 몰입할 수 있었고 사람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하나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협동심 또한 기를 수 있었다.

▶ 임사랑: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팀원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전략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며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경험은 협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다. 또한 마케팅 전략 수립과 어플 기능 논의를 통해 사용자 중심의 사고방식을 기를 수 있었으며,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며 스스로의 성장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 전공수업을 넘어 실무적 경험과 개인적 성찰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 박윤지: 팀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으며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어가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다. 병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고려해야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재정, 인력, 위치 등 제한적인 요소들을 보완할 수 있는 구상을 떠올리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다. 평소 전공 과제와 다른 수준의 프로젝트였기에 높은 경험치를 쌓을 수 있어 매우 의미 있었다.

▶ 권서현: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중간에 주제가 여러번 바뀌었어서 걱정이 많았다. 우리가 이걸 계속 하는게맞는지, 또 잘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데 점차 확신이 사라졌었던 거 같다. 그러나, 모두가 서로를 믿고, 마지막으로 주제를 정해 구체화를 시켰을 때는 서로에게 확신이 생겼던 거 같아, 그런 과정들을 보며 많이 넘어지고, 부딪혀 본 이 경험들이 결국 이 프로젝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 기반이 된 거 같아서 정말 이 한학기 중 손에 꼽는 소중한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제20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4학년도 2학기 학습법 소모임 [교과스터디]



우수팀 명

MSG(Mission for sustainable)

학습 과목

지역사회 보건복지와 ESG

학습 기간

24. 9. 2. ~ 12.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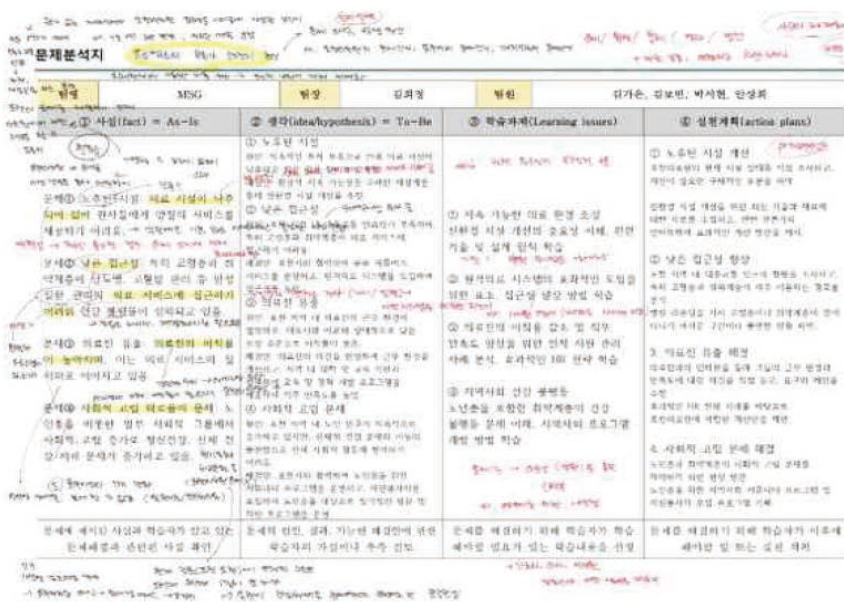
팀 원

김가은, 박서현, 김보민, 안상희,
김희정(AI보건의료학부 22)

학습 일정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1/24	19:57~21:56	ZOOM	경기도 의료원 포천병원에 방문(11/12)하여 재활의학과, 산부인과 대기시간, 정형외과 조기마감, 교통 접근성에 대해 각 3~4개씩 질문을 작성하여 인터뷰함. 인터뷰를 통해 얻은 답변을 토대로 그동안 수집한 자료의 문제 사실화, 심각성을 논의함.
11/26	16:00~18:00	미래관 202호	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 접한 '병원동행(교통) 자원봉사 사업'을 구체화함. 경기도 의료원(공공의료기관), 민간병원의 교통 자원봉사 사업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각자 다른 기관의 사업 공지를 확인 및 정리함. 서로의 자료를 공유하여 인상 깊은 사례를 선택하고 포천병원에 적용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수정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함.
12/3	16:00~18:00	미래관 709호	포천병원의 이슈를 4가지에서 1가지로 축소하여 더 자세하게 분석함. '교통 접근성 우려'라는 이슈의 접근방식, 통계자료, 인터뷰자료, 해결방안, 결과를 정리함. 또한 자원봉사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한 해결방안에 대해 자료를 구하여 피드백을 받아 자료를 보완함.
12/10	15:00~17:30	미래관 101호	포천병원 문헌조사 내용, 인터뷰, 이슈 분석, 개선방안을 위한 사업 소개를 순서로 발표를 진행함. 이론적 내용과 실천적 방안으로 팀원과 발표파트를 나눠 보다 효율적이고 집중하기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함. 다른 팀의 발표를 함께 들으면서 경청하고, 발표에 대한 포천병원의 평가를 통해 대상을 받음.

활동 사진



활동 소감

▶ 종합 의견

이번 교과스터디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기존과 다른 수업방식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과의 협업으로 공공의료사업과 기관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노력했습니다. 더불어 활동을 위한 자료조사, 분석지, 인터뷰 질문지를 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 꾸준히 수정 및 보완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포천병원의 일정과 학생의 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교수님의 진행이 필요했으나, 이 외에는 팀원들과 함께 협력하여 과제 수행과 피드백을 통한 보완 작업 등을 진행했습니다. 과제를 수행하면서 객관적인 이슈 도출과 실행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체계적인 단계 구성과 각각의 가치를 평가하며 분석적 관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짧은 기간 동안 심도있게 연구하고자 팀원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실무현장을 방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학생 권한으로 기관의 허가과 내부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접근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교과스터디를 통해 학교와 병원의 협력을 이루었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연구를 위해 필요한 실무현장 방문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원활하게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도 자료조사에서 얻은 정보를 재확인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으며, 구상한 해결방안의 실행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며 연구의 방향성과 이슈를 선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앞으로 이러한 교과스터디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단기적으로 종료되지 않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거듭나 학생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관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포천만의 시민(대학생)과 소통하는 창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 김희정 : 지역사회 보건복지 ESG를 통해 기존 학부 수업이었던 AI보건의료프로젝트와 다른 새로운 방식의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주체적으로 계획, 정리, 실행의 단계를 수행하면서 내용의 부족한 점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더불어 교수님과의 면담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포천병원만의 이슈를 선정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구체화하면서 마지막 발표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학생들은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김가은 : 지역사회 보건복지 ESG 수업을 통해 팀원들과 협력과 배려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팀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팀프로젝트를 하는 수업을 3학년 동안 수강하지 못했는데 이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다음에도 이런 비슷한 팀프로젝트가 열린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경험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김보민 : '지역사회 보건복지와 ESG' 강의를 통해 팀 프로젝트 과정 속에서 ESG 경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실감하게 되었고, ESG경영을 체험해 봄으로써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넓어짐을 느꼈습니다. 또한, 협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협업은 단순한 역할 분담을 넘어, 팀원 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앞으로 더 나은 팀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박서현 :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포천의료원의 이슈와 해결책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포천병원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기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포천의 지역적 특성상 교통 접근성이 낮고 대형 병원이 포천병원 하나뿐인 상황에서 외곽 지역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이슈를 발견하였으며, 특히 관인면과 창수면 주민들이 겪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 부족은 노인 복지와 건강 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제안한 "포천 행복 동행 서비스"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병원과 자원봉사자가 협력해 단순한 진료 제공을 넘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한 사업이 하나의 좋은 모델로 만들어져, 포천시 주민들의 복지뿐만 아니라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안상희 : 이번 esg 수업을 통해서 팀원들과 함께 자료조사, 병원방문 및 인터뷰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던 건 같은 팀원들과 함께 생각하여 나올 수 있었던 거 같아서 협력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팀원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어서 든든하고 재밌게 진행할 수 있었고, 이러한 지역사회 esg에 대해 한층 더 깊게 알게 되어서 좋은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20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4학년도 2학기 학습법 소모임 [교과스터디]



우수팀 명

건행조

학습 과목

지역사회 보건복지와 ESG

학습 기간

24. 10. 18. ~ 12. 3.

팀 원

김영한, 이영찬(AI보건의료학부 19)
유진솔, 이가은(AI보건의료학부 22)

학습 일자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0/18	16:00~18:00	학교	포천병원의 운영 현황과 지역사회의 의료 환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통계 자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인구 구성과 주요 질병 분포를 파악하였고, 관련 의료 정책과 사업 모델 사례를 분석하여 병원의 역할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또한, 최신 뉴스 기사와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가 직면한 의료 서비스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병원과 지역사회 간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10/22	16:00~18:00	학교	분석 보고서를 기반으로 포천병원과 지역사회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팀원 간 논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실현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과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였다.
11/12	16:00~18:00	포천병원	포천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병원의 운영 상황, 주요 문제점,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의료적 요구를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도출된 문제를 해결 사업모델에 반영하였다.
12/3	16:00~18:00	학교	포천병원의 특성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고령자 대상 만성질환 협진 프로세스와 종합관리 사업 모델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였다. 설계된 모델은 팀 내 협업과 전문가의 피드백을 통해 최적화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발표를 통해 모델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공유하였다.

활동 소감

▶ 종합 의견

포천병원과 지역사회 간의 의료 환경을 깊이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은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포천 지역의 의료 접근성, 한 자들이 겪는 불편함, 그리고 의료 인프라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이론적 지식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통계와 정책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 인터뷰도 직접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론과 실무 간의 간극을 줄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팀원들과의 협업과 활발한 논의를 통해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며 보다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협업의 중요성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또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책임감 있게 임하는 태도를 배웠습니다.

소모임 활동을 통해 이론적 지식을 넘어 실무에 적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며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팀원들과 함께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문제에 도전하고,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나가고 싶습니다.

▶ 김영한 : 지금까지 배웠던 강의를 기반으로 팀 프로그램을 통해 복습할 수 있었던 점이 정말 유익했습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학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계기로 팀원들과 함께 협력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활동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팀활동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진솔 : 만성질환 관리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론과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려는 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실제 병원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문제와 니즈를 파악함으로써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접근법과 현장에 맞는 해결책을 구체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 이가은 : 지역사회 의료 문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장 인터뷰를 통해 실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사업 모델에 반영하는 과정이 인상 깊었습니다. 팀원들과의 협업과 아이디어 논의를 통해 문제 해결의 다양한 접근법을 배울 수 있었으며, 배운 지식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어 보람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 이영찬 : 전공 과목을 통해 배운 이론적 지식들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한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PEST 및 SWOT 분석을 통해 거시적인 보건 의료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론과 현장의 간극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한 가지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려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활동 사진



제20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4학년도 2학기 학습법 소모임 [교과스터디]



우수팀 명

복학했조

학습 과목

미술치료사 윤리

학습 기간

24. 11 . 26. ~ 12. 10.

팀 원

김민주, 김수빈, 김정연,
임다솜(미술치료학과 20)

학습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1/26	11:00~13:00	미래관 207호	• 미술치료사의 윤리적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경험 & 필요한 이유 생각해 보고 나누기 • 미술치료에서의 윤리적 원칙 학습하기 • 학습 후 알게 된 점 나누기
12/3	11:00~13:00	미래관 207호	• 실습을 하며 경험했던 미술치료 환경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미술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생각하며 이상적인 미술치료 환경 그려보기 •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치료사와 내담자에게 미술치료 시 적절한 치료 환경이 필요한 이유 정리하기
12/10	12:00~14:00	미래관 511호	• 치료사에게 윤리강령이란 • 전문적인 치료사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적 태도
12/20	21:00~23:23	ZOOM	• 내가 미술치료사가 되고 싶은 이유 • 나에게 희망, 두려움, 치유란?

활동 사진



활동 소감

▶ 종합 의견

소모임을 마무리하며 미술치료사로서의 윤리적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중 내담자의 안전과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이는 단순히 치료의 결과를 넘어, 내담자가 치료 과정에서 느끼는 신뢰와 안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미술 치료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 치료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치료 환경의 배치와 분위기, 안전한 환경 등 모두 내담자의 치료 경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치료사의 윤리적인 태도는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닌 내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을 이해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번 소모임을 통해 얻은 지식과 통찰은 앞으로의 미술 치료 현장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윤리적 원칙을 바탕으로 한 치료 접근 방식이 내담자에게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겠다. 또한, 미술치료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태도 및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단순한 이론적 지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치료 현장에서의 실천적 적용이 필수적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 김민주 : 소모임을 통해 동기들과 치료사에게 가장 기본적인 윤리 원칙에 대해 깊이 토론하며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기관에서의 실습 경험을 나누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고, 누구나 쉽게 빠질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해 최선의 대처 방법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윤리의 중요성과 치료 현장에서 중요하게 지켜져야 하는 부분을 배웠던 활동이었습니다. 토론 위주의 수업이라 동기들과 소모임에서 해당 주제에 대한 많은 대화를 나누어 좋은 학습 경험이 되었습니다.

▶ 김수빈 : 미술치료사 윤리 수업에 대해 소모임을 진행하면서 P/F수업이라 자칫하면 긴장감을 놓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동기들과 좀 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각 학회별로 윤리 강령에 대해 꼼꼼히 다뤄 보고 공부하면서 미래에 미술치료사가 되었을 때 어떤 치료사가 되고 싶은지, 어떤 걸 지켜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던 시간이라서 4학년 2학기 전공 공부를 풍부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 김정연 : 이번 소모임 활동을 하며 수업 내용을 더 깊게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경험을 나누고, 다른 동기들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좋았습니다. 동기들과 다양한 사례를 나누고, 분석하며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적용해 볼 수 있어 학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제가 잘 몰랐던 부분과 잘 숙지하고 있던 부분, 추가로 학습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임다솜 : 실습이나 상담 관련 대외 활동을 하면서 치료사의 역할이나 책임, 윤리에 대해 고민한 적이 많았고, 더 학습할 필요성을 느껴 소모임을 만들게 되었다. 소모임 활동을 통해 각자 경험한 치료 과정에서의 다양한 상황과 이슈들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공유하다 보니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 치료사는 다양한 성격, 종교, 생활 환경, 가족관계 등을 가진 대상들을 만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마음이 짐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이는 내담자의 긍정적인 치료 효과와도 관련 있다고 생각했다.

제20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4학년도 2학기
학습법 소모임 [교과스터디]



우수팀 명

작은 아씨들

학습 과목

영상제작기초

학습 기간

24. 11. 8. ~ 11. 29.

팀 원

이서연, 이수현(미래융합대학 23)

학습 일정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1/8	15:00~17:00	교내	첫 주에는 교수님의 1주차와 2주차 수업 자료를 검토하며 어려웠던 부분을 팀원과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를 찾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카메라 사용법, 구도, 조리개 값, ISO 설정 등 기초 이론을 학습하고, 인터넷과 외부 자료를 참고하여 실내의 촬영 시 필요한 이론적 배경지식을 쌓았다.
11/15	16:00~18:00	교내	1차 활동에서 촬영한 사진들에 대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진을 촬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팀원과 서로의 사진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촬영 기술과 구도 선택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였다. 다양한 촬영 기법과 조명, 구도 설정 등을 시도하였으며, 실내 외 환경에서의 촬영을 통해 최적의 카메라 설정을 실험하였다.
11/22	16:00~18:00	교내	2차 활동에서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진을 촬영하고, 다양한 환경에서의 촬영을 실습하였다. 인공 조명과 자연광을 활용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촬영을 진행하고, 조리개 값과 ISO 설정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며 다양한 촬영 기법을 실험하였다. 팀원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촬영 기술을 더욱 발전시켰다.
11/29	16:00~18:00	교내	이번 주에는 드라마 쇼츠를 주제로 영상 촬영과 편집을 진행하였다. 팀원과 함께 콘셉트와 시나리오를 기획하고, 필요한 장비와 소품을 준비하였다. 촬영 배우를 섭외하여 다양한 각도와 구도를 활용해 촬영을 마쳤다. 촬영 후 편집 작업을 통해 이야기를 연결하고, 효과와 음악을 추가하였다. 이번 활동을 통해 영상 촬영과 편집 기술을 익히고, 팀원 간의 협력과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활동 소감

▶ 종합 의견

이번 소모임 활동은 저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었지만, 실습과 피드백을 통해 점점 더 실질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진 촬영에서 시작하여 영상 촬영과 편집까지 진행하면서 각 단계마다 팀원과의 협력과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더욱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촬영 기법과 편집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해 나가면서 자신감도 함께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드라마 쇼츠 제작 과정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도해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팀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과정이 매우 즐거웠습니다. 촬영 배우를 섭외하고, 다양한 장비와 소품을 준비하며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활동을 통해 얻은 피드백은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시간 관리와 장비 준비, 역할 분담 등 개선할 점도 많이 발견하였으며, 이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소모임 활동을 통해 사진과 영상 촬영 및 편집 기술뿐만 아니라 팀워크와 소통의 중요성도 깊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이 활동은 저희 학습과 성장에 큰 기여를 했으며, 앞으로의 프로젝트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서연 : 평소 촬영과 편집에 큰 관심이 있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경험할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모임 활동이 저한테는 매우 소중한 것 같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영상 촬영과 편집 작업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드라마 쇼츠 제작 과정에서 팀원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더욱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하였고, 피드백을 통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기술적 역량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활동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이수현 : 이번 소모임 활동은 저에게 매우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도전한 영상 촬영과 편집 작업은 많은 것을 배우게 해주었습니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촬영 기법과 편집 기술을 익히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팀원과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점점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과 성장을 이루어내고 싶습니다.

활동 사진



제20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4학년도 2학기
학습법 소모임 [리딩리더스]



우수팀 명

BOOK스터شات

학습 내용

독서 토론 및 감상 공유

학습 기간

24. 11. 20. ~ 11. 28.

팀 원

서종우, 이인기, 서하민, 조창범,
이운상, 심규범(약학과 23)

학습 일정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1/20	17:00~19:00	과학관 103호	책 '장하석의 과학, 철학을 만나다'를 읽고 과학적 사실들에 대한 철학적인 논의를 진행해 보았다.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었던 과학적 사실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고 과학과 철학이라는 두 학문이 서로 연결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11/25	16:00~18:30	과학관 103호	두 번째 리딩리더스 활동에서는 책 '사피엔스'를 읽고 7만년 동안 전개된 인류 문화에서 두드러진 3개의 주요 혁명, 즉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나누었다. 인류의 진화에 대한 폭넓고 깊은 이해를 함양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11/28	16:00~18:30	과학관 103호	마지막 리딩리더스 활동에서는 책 '밀레니얼 칠드런'을 읽고 과학의 발전과 빈부격차의 심화에서 발생하는 여러 불평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책 속 정부의 제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나누고 소셜 속 사회 문제의 해결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 솔직하게 서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회차별 감상평

1차	우리는 책 '장하석의 과학, 철학을 만나다'를 통해 과학과 철학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할 수 있었다. 모든 팀원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점은 과학은 단순히 실험과 사실들의 집합체가 아니며 심오한 철학적 사고가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이었다. 과학의 진리 탐구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해석과 철학적인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었다. 또한, 과학적 방법론의 한계를 느낄 수 있었고 불확실성이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밝혀진 과학적 사실들을 진리로 여기고 무한히 신뢰하기 보다는 진리에 가까워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를 깨닫고 존중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책 속에 담긴 과학은 확정적이지 않다는 메시지가 인상 깊었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생각했었던 과학에 대한 기존의 시각이 확장됨을 느낄 수 있었고, 철학에 대한 흥미가 더욱 깊어짐을 느낄 수 있었다. 과학과 철학이 결합된 내용을 통해 더욱 풍부한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약학과 학생으로서 과학적 사실이나 이론을 다룰 때 더 넓은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것 같다.
2차	책 '사피엔스'를 읽은 뒤 팀원들은 각자 이 책의 저자가 던지는 다양한 질문들과 관점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책에서는 인지 혁명, 농업 혁명, 과학 혁명의 3가지 인류의 주요 혁명을 다루었는데 그 중에서도 인지 혁명이 인간에게 가져온 변화를 특히 흥미롭게 생각했었던 것 같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단순히 더 나은 신체적 능력이나 도구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상징적 사고라는 인간들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통해 사회를 조직하고 복잡한 문명을 만들어갔다는 점에서 인간의 여타 생명체와의 다른 특별함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사피엔스'는 인간의 역사와 문명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오늘날의 우리가 어떤 사회적, 환경적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책이었다. 또한, 인간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책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책을 읽고 나서,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떠오른 생각들을 서로 나누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3차	책 '밀레니얼 칠드런'은 밀레니얼 세대의 성장 배경과 그들이 겪은 어려움에 대해 깊이 있고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 같다. 밀레니얼 세대의 불안정한 경제적 환경과 사회적 변화가 그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미친 영향을 깨달을 수 있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는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자라났고, 그로 인해 성공과 행복의 개념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였다는 사실을 잘 볼 수 있었다. 이에 더해,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밀레니얼 세대가 다른 세대와 어떻게 소통하고 정보를 소비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특히, 정보와 소통의 방식이 급변하면서 그들의 사고 방식도 다양화되었으며 이러한 양상이 사회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깊이 체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밀레니얼 세대의 복잡한 정서를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했다고도 느꼈던 것 같다. 사랑, 관계, 사회적 책임 등 밀레니얼 세대가 중시하는 가치들이 매우 다층적이고 개인적이라는 점에서, 이를 보다 깊이 있게 풀어내는 방식에 있어 아쉬운 점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활동 소감

▶ 종합 의견

이번 독서 소모임 활동은 개인적인 독서 경험을 넘어 다른 사람들과 책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혼자서 책을 읽을 때는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놓친 관점들을 동기들과의 토론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의 경험이나 배경에 따라 같은 책이라도 다르게 느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어서 소모임이 진행되는 전반적인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러한 독서 공유의 과정은 단순히 책을 읽거나 이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서로의 다양한 사고를 자극하며 더 풍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도 종종 모여서 독서 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만, 독서 소모임 활동이 더 효과적이고 흥미롭게 진행되기 위해서 몇 가지 점을 개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책을 선택할 때 각자의 관심사를 더 다양하게 반영한다면 좀 더 다각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돌아가며 한 사람씩 책을 추천한다면 각자 관심 있는 분야에서 책을 고를 수 있고 예술, 과학, 시, 경제, 역사 등 더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과 관련된 활동이나 책의 내용과 연계된 영화, 강연 등을 함께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영화나 관련된 강사의 강연을 보고, 이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더 풍부한 지식 함양과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동 사진



제20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4학년도 2학기
학습법 소모임 [리딩리더스]



우수팀 명
인베스리딩닷컴

학습 내용
독서 토론 및 감상 공유

학습 기간
24. 11. 18. ~ 12. 7.

팀 원
성상현, 박가흔, 김원근(약학과 21)
김치윤, 남궁원, 홍준화(약학과 19)

학습 일자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1/21	16:00~18:00	과학관 105호	세 명의 거장의 사고 체계를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서 주식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주식은 어떤 가치를 지니며, 가치와 가격의 관계는 어떠한지, 투자자로서 각 개인이 이 관계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기업의 어떤 요소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요소는 무시해야 하는지를 살펴 나만의 투자 사고 체계를 정립해 보았다.
11/28	16:00~18:00	과학관 105호	지난 500년간 주요 국가들의 경제적, 정치적, 역사적 패턴을 파악해 전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를 밝히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알아보았다. 통화, 신용, 부채, 경제 활동의 빅 사이클을 공부해보고, '빅 사이클'을 찾아내어 현재의 위치와 세계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전망한다. 이에 더해 통화 가치가 어떻게 변화했으며, 이를 투자와 연관짓는 방법을 고안해보았다.
12/5	16:00~18:30	과학관 105호	방어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차례로 다루며, 방어적 투자자의 안정적인 투자법과 공격적 투자자의 리스크 관리법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펀드 투자, 증권분석, 기업 비교분석, 배당 정책, 안전마진과 같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해 투자 철학을 정리하며 실질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개발해보았다.

회차별 감상평

1차	홍진채의 '거인의 어깨'는 투자계의 거장들인 벤저민 그레이엄, 워런 버핏, 피터 린치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독자들에게 이 세 명의 위대한 투자자들의 철학과 방법론을 통해 경제적 자유와 투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중략) ※ 종합적 감상 : '거인의 어깨'는 단순히 투자 지침서를 넘어, 투자자들의 삶과 철학을 깊이 있게 탐구한 책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 워런 버핏, 피터 린치의 이야기를 통해, 단순히 금전적 성공이 아닌, 인내와 지혜, 철저한 준비와 분석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홍진채의 명확한 서술과 깊이 있는 분석은 독자로 하여금 각 인물들의 철학을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방식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차	레이 달리오의 '변화하는 세계질서'는 세계 경제와 정치의 변화를 역사적 패턴을 통해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 책은 과거의 사례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 정치적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합니다. (중략) ※ 종합적 감상 : '변화하는 세계질서'는 단순한 역사 분석을 넘어, 미래를 대비하는 데 필요한 통찰과 지혜를 제공합니다. 달리오의 깊이 있는 분석과 명확한 서술은 독자로 하여금 현재와 미래의 세계 질서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책을 통해 얻은 통찰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3차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고전적인 투자서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투자 지침을 넘어, 투자 철학과 전략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데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1. 가치 투자의 원칙 그레이엄은 '가치 투자'의 아버지로 불리며,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주식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투자자들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주식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 책을 통해 가치 투자 원칙과 주식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2. 안전 마진의 중요성 그레이엄은 안전 마진(Margin of Safety)의 개념을 강조합니다. 이는 주식의 내재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여 투자에서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입니다. 이 개념은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안전 마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3. 감정적 투자 관리 투자에서 감정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그레이엄은 많은 조언을 제공합니다. 그는 투자자들이 시장의 변동성과 감정적 반응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책을 통해 투자에서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4. 장기적인 관점의 중요성 그레이엄은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복리 효과와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 책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 종합적 감상 : '현명한 투자자'는 투자자들에게 단순한 투자 방법을 넘어서, 철학과 전략을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돕는 책입니다. 그레이엄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가치 투자 원칙과 안전 마진, 감정적 투자 관리, 장기적인 관점은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활동 소감

▶ 종합 의견

이 세 권의 책은 각각 다른 관점에서 투자와 경제, 그리고 세계의 변화를 분석하지만, 공통적으로 합리적인 사고와 장기적인 관점을 강조합니다. '거인의 어깨'는 투자 거장들의 철학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변화하는 세계질서'는 역사적 패턴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 정치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현명한 투자자'는 가치 투자 원칙을 통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이 책들을 통해 얻은 지혜와 통찰은 단순히 투자에 국한되지 않고, 삶 전반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영감을 받았으며, 앞으로의 투자와 경제적 판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활동 사진



책의 여지는 지난번 역사를 거울삼아 다가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과거의 계급을 대항해, 대항해, 중국 왕조 등 중앙집권제는 일정한 빅 사이클이 있었다. 역시도 생물체처럼 카이스트 사이클이 있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발전한다. 정말 큰 흐름에 붙어있는 삶면서 한 번 깨닫게 될까 하므로, 몇 세대에 걸친 역사를 공부하지 않은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다. 흐름과 불황 사이의 간격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하게 될 미래는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그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계급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과거를 보면서 살아간다. 미래를 예측하고 대처하는 능력은 변화를 통찰시키는 인간 관계의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에 달려 있으며, 그 능력은 과거에 그쳤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연구해야만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인생에 찾아온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아주 작은 조약병에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리는 보다 큰 규모에서 제한과 사치, 기쁨의 연립이라는 상호 연관된 요소들, 사이클 내 현재 우리의 위치, 향후 몇 년을 시간 등을 보지 못하고 개미처럼 짧은 인생에서 눈앞에 행 부스끼기를 놓치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다. 참

제20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4학년도 2학기 학습법 소모임 [전공튜터링]



우수팀 명
그리고 이제 논문을 곁들인...

튜터링 과목
면역학

학습 기간
24. 10. 28. ~ 11. 18.

팀 원
한지성(의생명과학과 21)
이소은, 윤지현, 윤나연, 김민지,
안해운(의생명과학과 21)

학습 일정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0/28	16:00~18:00	ZOOM	CNS(cell, nature, science)저널에 등재된 논문에서 abstract 및 introduction, figure, discussion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튜터가 준비해온 것을 토대로 하여 논문을 읽었을 때 나오는 질문 정리 및 figure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신 면역학 논문을 분석하면서 면역학 이론 및 최신 연구의 진행 동향을 연결지을 수 있었다. 1차 활동은 Treg-mreagDC에 관한 면역학적 지식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Lymphatic-localized Treg-mreagDC crosstalk limits antigen trafficking and restrains anti-tumor immunity 논문을 같이 읽고 토론 후 정리해봄으로써, Treg, mreagDC간의 상호작용이 종양미세환경인 TME에서 항원을 차단하고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것이 항암치료의 새로운 Target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11/4	16:00~18:00	ZOOM	2차 활동은 tumor associated macrophages에 대해 학습했다. 유방암 미세환경에서 TAM(종양 관련 대식세포)가 Collagen 축적, 대사 reprogramming을 통해 CD8+ T cell의 기능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을 밝은 연구에 대해 분석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TAM의 대사를 조절해서 섬유화 Target 항암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흥미로운 논문이었다. 논문의 abstract, introduction, figure, discussion을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었다.
11/11	16:00~18:00	ZOOM	3차 활동은 면역관문억제제(ICB)에 관련하여 학습했다. Anti-CTLA4 저항성은 확장된 TCR done을 통해 면역 조절을 한다는 것을 나타냈고, 전이성 흑색종(melanoma)에서 CTLA4 및 PD1 차단에 대한 저항성과 관련된 뚜렷한 면역 환경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치료 전략의 필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논문을 읽으면서 이 논문에서 다루는 메커니즘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읽고싶은 추가 논문에 대해 찾아볼 수 있는 방향으로도 연결 해볼 수 있었다.
11/18	16:00~18:00	ZOOM	4차 활동에선 암의 면역 회피 기전을 학습했다. 종양 세포는 면역 감시를 회피하기 위해 유전자 발현을 변화시킨다. 그러나 역시 초기 단계에선 이를 발견하기 어렵기에, Tumor editing suppresses innate and adaptive antitumor immunity and is reversed by inhibiting DNA methylation에서 다루는 연구에선 인간 암과 유사한 GEMM을 이용해 종양세포, 면역세포의 유전자 발현 변화를 심도있게 분석하였다. 즉 DNA methylation을 억제하면, GEMM에서 종양의 성장이 강력히 억제되고 항 종양 면역이 재구성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암'이라는 키워드는 연구 주제로써 아이디어가 끊이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다른 논문이나 비디오 강의를 추가적으로 학습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했다.

활동 소감

▶ 종합 의견

학생들끼리 협력하여 논문을 선정해 같이 읽어보는 것은 학창 시절에 있어 기억에 남을 만한 활동이었다. 이런 활동은 학습 뿐만 아니라 지적 성장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각 주 활동이 끝난 후 보완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점들을 모색하고 생각하면서 모임과 공부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했다.

처음에는 Terminology와 복잡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에 약간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후 시간이 갈수록 실험 설계나 해석에 대한 이해도가 뚜렷하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CNS 논문의 복잡성 때문에 약간 위축이 되는 것도 있었으나, 어려운 개념을 하나씩 뜯어보고 전공 이론과 대입해보면서 비판적 사고나 창의성, 이해력을 높일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염증의 사이토카인 신호 전달 경로를 자가 면역 질환의 치료 적용과 연관시키는 등 논문에서 나왔던 개념들을 연결하는 방식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각 해당 주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통해 각자가 해석하고 이해한 방향 등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Figure를 해석할 때 어느 것을 위주로 봐야하는지와, 각자가 해석할 때 추구하는 방향이나 공부 방법 또한 공유해 볼 수 있는 기회여서 더 좋았던 것 같다.

▶ **한지성(튜터)** : 생명과학 분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면역학의 논문들을 선택하여 함께 분석하고 공부해봄으로써, 영향력이 큰 논문을 분석하고 최근 면역학 연구 결과를 토론하는 체계적인 접근 방식 자체가 학문을 학습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을 깨달은 계기가 되었다.

▶ **윤지현** : 복잡한 논문을 분석하는 능력이 예전보다 크게 향상되었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결론과 그걸 뒷받침해주는 데이터를 같이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튜터링을 통해 가설, 실험설계, 주요 결과를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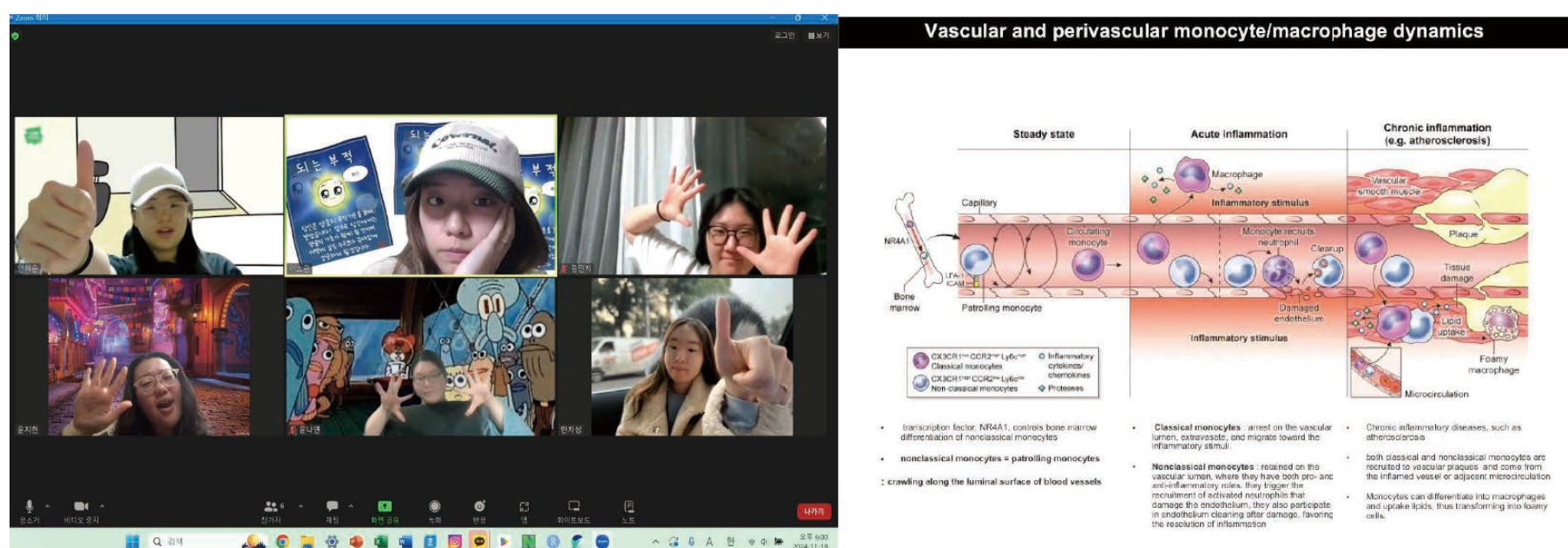
▶ **윤나연** : 더 많은 논문을 읽어봄으로써, 논문을 더 깊이 탐구하기 전에 연구의 본질 자체를 예측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abstract 부분과 introduction을 비판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다.

▶ **이소은** : 현재 수강하고 있는 면역학을 주요 초점으로 삼아 antigen presenting, t cell 활성화 및 면역 조절과 같은 주요 개념에 대해 보다 더 나은 이해점에 도달할 수 있었다. 종양 미세 환경 조작과 같은 최신 연구 결과에 노출되면서 이론적 지식과 더불어 실제 적용에 대해 기능해볼 수 있었다.

▶ **김민지** : figure와 discussion을 논해봄으로써, 통계 분석이나 FACS를 사용한 시각적인 자료들을 독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향상될 수 있었다. 또한 연구의 혁신 수준과 창의력들이 인상깊었던 것 같다.

▶ **안해운** : 논문과 실험, 이론 등을 통해 면역학적 mechanism을 확립하고 친구들과 과 같이 공부하면서 토론하고 했던 모든 경험들이 다 의미있게 다가왔다. 혼자서 공부하며 힘들어하는 것 보단, 어려운 논문에 다같이 부딪혀봄으로써 유대감도 얻을 수 있고 학문적 지식도 얻을 수 있어 좋았다.

활동 사진



제20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4학년도 2학기 학습법 소모임 [전공튜터링]



우수팀 명

PRB

튜터링 과목

분자생물학

학습 기간

24. 10. 28. ~ 11. 28.

팀 원

지소윤(의생명과학과 21)
박광빈(의생명과학과 21)
강서현(미래융합대학 23)

학습 일자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0/28	20:00~22:00	ZOOM	DNA의 이중 나선 구조와 핵산의 화학적 구성을 중심으로,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성 요소인 당, 인산, 염기의 특징을 학습하며, 퓨린과 피리미딘의 차이와 염기쌍의 상보적 결합 원리를 이해하였다. 이를 통해 세포 내 분자적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과 유전 정보 저장 방식의 기초를 다졌다.
11/4	20:00~22:00	ZOOM	DNA 복제의 메커니즘과 주요 효소의 역할을 학습하고, 유전자 발현 과정에서 전사와 번역의 흐름을 이해하였다. RNA 합성과 가공 과정의 핵심 단계인 프로모터 결합, 스플라이싱, 5' 캡 형성과 3' 폴리A 꼬리 추가, 그리고 리보솜에서의 단백질 합성 과정을 중점적으로 탐구하였다.
11/11	20:00~22:00	ZOOM	진핵생물과 원핵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 메커니즘을 비교하고, 전사인자와 RNA 간섭을 통한 전사 후 조절 기전을 학습하였다. 돌연변이와 유전자 재조합의 원리와 생물학적 의미를 이해하며, 크리스퍼(CRISPR-Cas9) 기술의 작동 원리와 이를 활용한 유전자 편집의 응용 사례를 탐구하였다.
11/28	20:00~22:00	ZOOM	CRISPR-Cas9을 중심으로 유전자 편집 기술의 원리와 응용 사례를 학습하고, 이를 활용한 질병 치료와 작물 개량의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분자생물학이 질병 진단과 치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PCR, NGS 등 기술을 통한 현대 의학적 활용 사례를 학습하며, 단일 세포 분석과 RNA 기반 치료제 등 최신 동향을 간략히 이해하였다.

활동 소감

▶ 종합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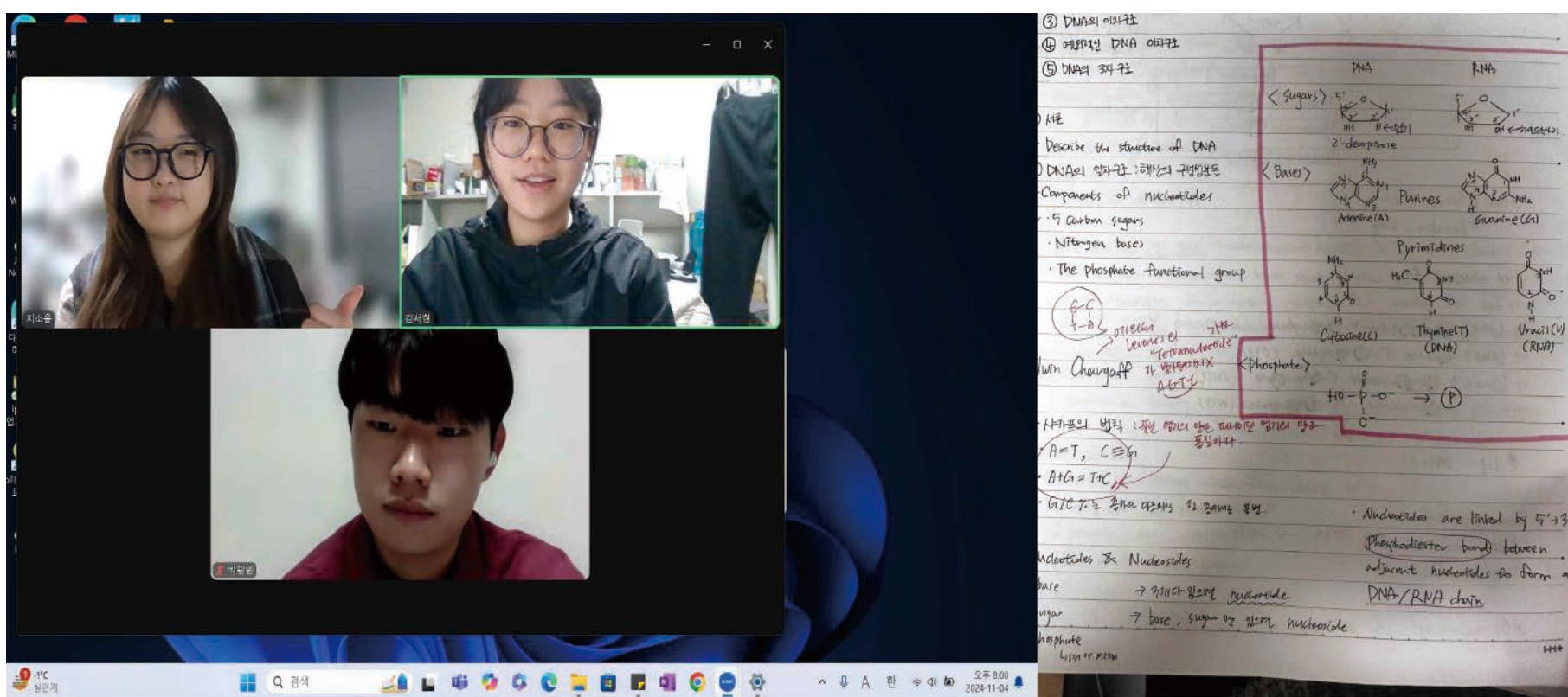
이번 튜터링 활동은 분자생물학의 핵심 개념과 실질적인 응용 사례를 심도 있게 탐구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튜티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흥미를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이었다. 특히, DNA 구조와 유전자 발현 과정을 시작으로 크리스퍼(CRISPR-Cas9) 기술과 같은 최신 연구 동향까지 다룸으로써 기초부터 응용까지 폭넓은 학습을 진행할 수 있었다. 각 주차에서 시각 자료와 실습 활동을 활용하여 복잡한 개념을 시각화하고, 문제 풀이와 그룹 발표를 통해 튜티들이 개념을 내재화하도록 돕는 과정이 매우 유익했다. 다만, 내용의 양이 많아 일부 주제에서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지 못한 점과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느껴졌다. 전반적으로, 이번 튜터링은 학문적 이해를 심화하고 분자생물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튜터와 튜티 간의 상호작용이 학습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면, 참가자 모두가 학문적 성장뿐만 아니라 과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소윤** : 같은 전공을 듣고 있는 후배와 들을 예정인 동기에게 미리 분자생물학이라는 과목에 대해 알려줄 수 있어서 도움이 된거 같아 기뻐고, 나 또한 어려웠던 분자생물학을 한 번 더 복습하는 활동이 될 수 있었다.

▶ **박광빈** : 내년에 수강할 예정인 분자생물학에 대해 미리 맛 볼 수 있는 시간이라서 어려웠지만 매시간 도움이 되었다.

▶ **강서현** : 현재 듣고 있는 분자생물학을 수업시간에 이해가 되지 않거나 어려웠던 부분을 튜터에게 물어봄으로써 어려움을 해결하고 다같이 공부할 수 있어 즐거웠다.

활동 사진



제20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4학년도 2학기 학습법 소모임 [전공튜터링]



우수팀 명
even하게 병태 A+

튜터링 과목
병태생리학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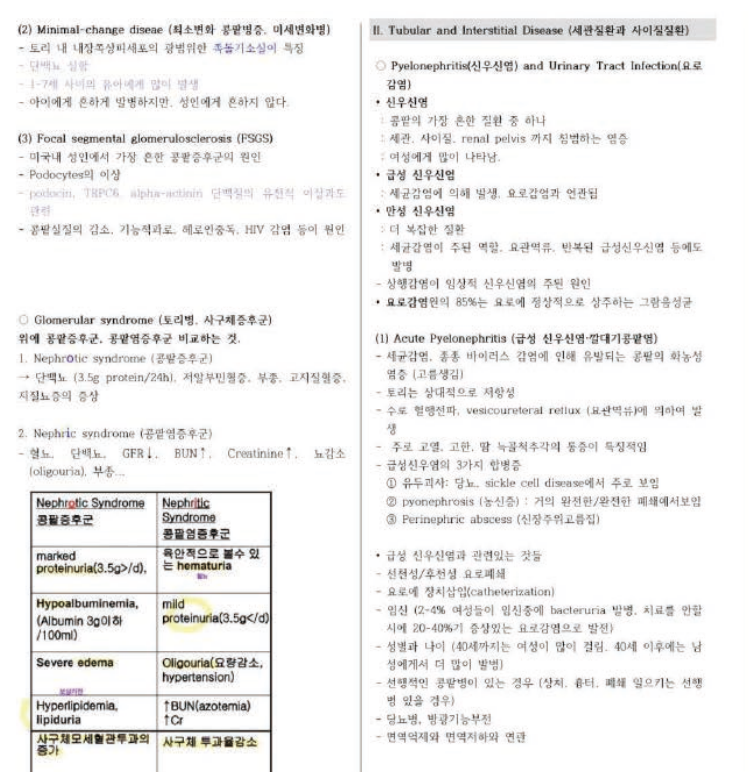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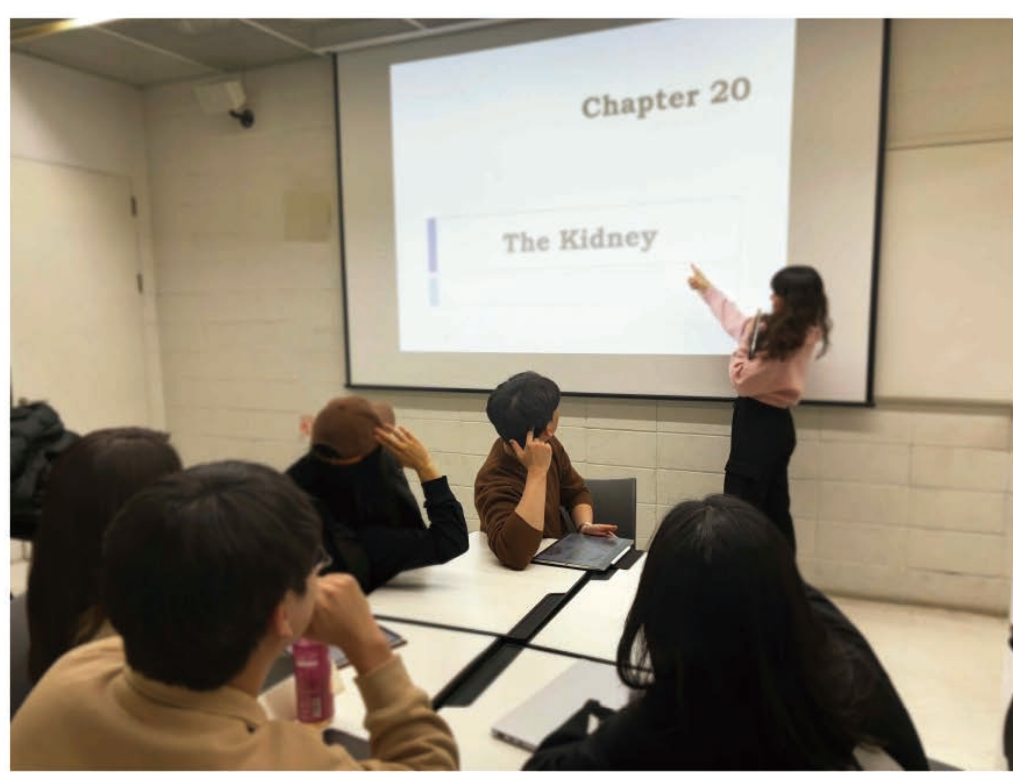
학습 기간
24. 11. 6. ~ 11. 27.

팀 원
김우림(약학과 21)
김미행, 나수빈, 박가영, 박태현,
오승범(약학과 21)

학습 일자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1/6	17:00~19:00	과학관 105호	[식도, 위] 식도와 위는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하는 데 중요한 기관입니다. 선천적 원인보다 후천적 원인에 의해 주로 발병하며, 발병 기전에 대해 신체를 직접 palp에 그려 이해되기 쉽게 설명해주었습니다. 또한 발병 군에 따른 증상 차이를 표로 정리하여 가시성을 높여주었습니다.
11/13	17:00~19:00	ZOOM	[간] 간 질환의 다수(간기능 상실, 간염 등)가 급성/만성으로 나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성/만성별로 갖는 병인과 임상적 특징을 표로 정리하여 공유해주었습니다. 또한 자주 헷갈려하는 감염성 간염을 일으키는 A/B/C/D/E 간염에 대해 구두테스트를 진행하여 튜터의 암기 정도를 확인하였습니다.
11/20	17:00~19:00	과학관 105호	[신장] 제자리 면역복합체 침착, 순환면역복합체 침착, 자가항체로 인한 톨리온 및 사구체 질환 등 신장에서 발생하는 병인과 원인기전에 대해 다뤘습니다. 신장 질환의 경우 병명이 비슷하여, 이를 헷갈리지 않도록 암기법을 만들어 튜터들에게 공유해주었습니다.
11/27	17:00~19:00	과학관 105호	[전체 복습] 식도, 위/간/신장 별로 발병 기전과 임상적 특징을 보고 병명을 맞추는 퀴즈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관은 상이하지만, 임상적 특징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 이를 잘 구분해야 됨으로 비슷한 특징끼리 묶어 차이점을 보여주어 튜터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활동 사진



활동 소감

▶ 종합 의견

위, 신장, 심장, 췌장 등등 여러 기관들에 대한 병태생리를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하게 배웠습니다.

기관별로 병명들도 비슷하고, 임상적 특징들도 비슷해서 제대로 기억하고 분류하는 것이 중요한 과목이었습니다. 또한, 병인과 임상적 특징을 제대로 구분짓는 것이 중요하여 이에 초점을 두고 튜터들에게 정확히 짚어주었습니다. 튜터들이 어느 부분을 헷갈려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매 스터디마다 먼저 물어봐주고 확인해주었습니다.

병태생리학 과목은 단순 암기보다는 유기적인 흐름을 이해하는게 과목을 공부하는데 수월하다고 느껴, 항상 어떠한 전후관계로 인해 원인과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정리해주었습니다. 또한, 역으로 결과를 알려주고 어떠한 이유로 어떤 질병이 발병하였는지를 물어 튜터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매주차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강조했던 부분을 위주로 퀴즈를 제작해 문제풀이 시간을 가졌으며,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튜터로서 추가설명을 해주었습니다.

▶ 김우림(튜터): 가끔은 너무 튜터들을 힘들게 하는건 아닌지 걱정하였는데, 오히려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뿌듯했습니다!!

▶ 김미행: 공부할 양이 많아서 매 시험마다 힘들었던 과목이었는데, 튜터가 중심을 잡아주고 제대로된 공부로 저를 이끌어아가주어서 덕분에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많이 힘들었던 스터디였습니다..

▶ 나수빈: 덩방거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소한 철자 하나하나까지 체크해주는 섬세한 튜터 덕분에 본 시험 때 실수를 줄일 수 있어서 엄청 고맙습니다.!

▶ 박가영: 공부량이 많아서 걱정이었었는데, 튜터링 프로그램 덕분에 미리미리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스터디 중간중간 투덜대기도 하고, 힘든 모습을 많이 보여 튜터에게 항상 미안했지만,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준 것 같아서 마음의 짐을 던 것 같습니다.

▶ 박태현: 항상 궁금한 점이 많아서 튜터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는 과정에서 더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었고, 질문했던 것이 시험에 나와서 신이 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ㅎㅎ

▶ 오승범: 매 주차 스터디 때마다 철저한 준비를 해와준 튜터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20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4학년도 2학기 학습법 소모임 [전공튜터링]



우수팀 명
미.친.자.(미생물과 친해지자)

튜터링 과목
약품미생물학 I

학습 기간
24. 10. 30. ~ 12. 13.

팀 원
이혜린(약학과 23)
김민지, 이채연, 정채원(약학과 23)

학습 일자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0/28	19:00~21:00	과학관 103호	이번 주차에서는 '미생물 검출 및 분석 방법'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미생물은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현미경을 사용하여 관찰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생물을 관찰하기 위해 염색을 진행합니다. Crystal violet과 Congo red가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Crystal violet은 미생물의 세포벽에 있는 peptidoglycan을 염색하여, 그람염색(Gram-staining)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람염색의 과정은 중요하고, 아래와 같습니다. (생략)
11/4	19:00~21:00	과학관 103호	바이러스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략) 이와 같은 내용으로 바이러스의 생물학적 특성과 배양 방법, 미생물의 영양 요구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22	19:00~21:00	과학관 103호	아래의 크게 두가지 내용 미생물의 계통분류, 미생물에서의 증식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생략)
12/13	18:00~20:00	스터디 카페	몇가지 질문을 선택해 학습을 진행하였다. 1. CO2 fixation의 종류와 그 차이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중략) 2. Peptidoglycan 합성에서 NAM과 NAG의 다른 점은 무엇이고 골격이 만들어지는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 이해해보고싶다. (중략) 3. NH3의 동화과정 중 NH3가 유무와 그 안에서 경로가 두가지씩 있어서 수업 시간에 다 정리하지 못했다. 함께 정리해보고싶다. (생략)

활동 소감

▶ 종합 의견

한주씩 돌아가면서 서로의 튜터가 되어주면서 책임을 지고 그 주차의 수업 내용을 요약하고 스터디 내용을 준비하며 각자 더욱 깊이있는 학습이 되었다. 튜터로 참여한 주차의 경우, 간단히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한 뒤, 튜터의 스터디 내용을 통해 수업 내용을 자세히 익힐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 모든 과목을 이렇게 학습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약품미생물학처럼 비중있고 난이도가 높은 과목은 전공튜터링 소모임을 통해 학습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다음 학기에도 전공튜터링을 신청하여 활동할 계획이다.

▶ 이혜린(튜터) :

약품미생물학1 과목이 어렵고 암기도 많고, 교수님도 열심히 가르치시는 과목이라고 들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 많았다. 그러던 중 동기들과 소모임을 조직해 학습하기로 했고 전공튜터링을 하게 되었다.

혼자였으면 각 주차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고 시험을 볼지 매우 막막했을텐데, 돌아가면서 한 주차씩 깊이있게 준비하고 같이 스터디의 형식으로 공부를 진행하며 한 주차를 매우 깊이있게 공부하는 경험도 하면서 공부의 감을 잡고, 다른 주차들에는 다른 조원들이 준비한 내용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공부의 질을 챙기면서 효율까지 얻은 것 같다.

▶ 정채원 :

미생물학이 처음 배우는 과목이기도 하고 너무 양이 방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던 과목이었다. 그러나 튜터링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학습내용을 나누고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찾으며 공부하니 혼자할 때보다 재밌고 효과적으로 미생물학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매 학습을 마치고 나서 활동보고서를 쓰는 것을 통해 학습 내용을 온전히 내것으로 만들 수 있어 유익했다.

▶ 김민지 :

이번에 약품미생물학 강의를 수강하며 정말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동기들과 함께 소모임을 하면서 어렵기만 했던 약품미생물학이 조금은 편해지고 무엇을 배우는 과목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출문제의 경우 교수님께서 답안지만 주시기에 왜 이런 답이 도출되는지 알 수 없었는데 덕분에 그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더욱 그 개념을 확실히 잡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 이채연 :

미생물학은 처음 접해보는 학문이라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어들이 모두 너무 생소하고 암기량도 많았습니다. 또한 매주 오랄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매주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친자 활동을 통해 미생물학을 기초부터 같이 학습하고 암기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로 문제를 내고 대답하는 형태로 오랄 테스트를 대비하였던 것이 시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동기들과 함께 방과후에 복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더욱 돈독한 관계를 다질 수 있었던 점도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학습법 소모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면 꼭 다시 참여하고 싶습니다.

활동 사진



제20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4학년도 2학기
학습법 소모임 [영글클럽]



우수팀 명

영화보는사이

학습 내용

영화감상 및 감상평 공유

학습 기간

24. 11. 6. ~ 12. 4.

팀 원

박온후, 김수빈,
허중경(생명과학부 23)
유수빈(헬스케어융합학부 23)

학습 일정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1/6	18:00~20:00	해룡학사 셀프주방	영화 청년경찰을 시청하고 <본인이 경찰대 학생이라면 납치 현장을 목격했을 때 퇴학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들처럼 교수님 몰래 직접 수사를 진행 할 것인가? 이것은 옳은 행동인가?>를 주제로 선정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 주제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으로는 영화의 내용을 보면 단순한 납치를 넘어 불법적인 난자 추출 장기 매매 조직과 연결되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미래에 경찰이 되려고 한다면 정의를 실현하고 사람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학생이기에 이를 외면한다는 것은 나중에 진정한 경찰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부정적인 답변으로는 학생의 신분으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사건에 개입한다면 이는 정의는 실현하였지만, 질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본인과 다른 주변인들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의견을 나누었다.
11/11	18:00~20:00	해룡학사 셀프주방	영화 라퐁젤을 시청하고 <영화에서 나오는 신비한 꽃처럼 우리 사회에서 희소성을 지니고 있는 것들을 개인이 독점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사회에 기여를 해야하는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독점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는 개인이 발견한 것이고 개인에게 선택권이 있기에 독차지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였고, 사회에 기여해야한다는 의견은 개인의 발견이라도 이것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다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12/4	18:00~20:00	해룡학사 셀프주방	영화 위대한 쇼맨을 시청하고 <행복과 자유 중 하나를 고른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자유가 없다면 진정한 행복도 있을 수 없다며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제한된다는 것이 결국 행복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의견과 행복한 삶을 위해 조금의 자유를 포기하더라도 이것이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의견을 나누었다.

회차별 감상평

1차	청년경찰을 본 후 팀원들은 현실적인 범죄 문제를 다룬 영화의 메시지에 공감할 수 있었다. 납치, 난자 불법 추출 문제를 통해 일상에서 주변을 살피며 주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느꼈다. 또한 두 주인공의 유쾌한 케미와 액션 장면에서 큰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웃음과 긴장감 사이에서 진지한 주제를 전달하려는 영화의 의도를 되새기게 되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2차	라퐁젤을 시청하고 팀원들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어린 라퐁젤을 납치하여 감금한다는 점에서 분노를 느꼈다. 성장한 라퐁젤이 성 안에서만 지내는 장면을 보며 라퐁젤이 자유를 갈망하는 모습에 공감하고 그녀가 밖을 나가 세상을 바라보는 장면을 통해서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애니메이션 영화이지만 자신만의 꿈을 찾는, 가족과 관련된 사랑과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었다.
3차	위대한 쇼맨을 시청하고 팀원들은 화려한 노래와 안무가 인상적이라고 느꼈다. 강렬한 오케스트라 음악으로 영화에 더욱 몰입할 수 있었다. 노래에 담긴 등장인물들이 처한 상황들과 감정에 공감할 수 있었고 노래와 함께 감상하니 더욱 인상 깊게 시청할 수 있었다. 특히, 편견과 억압에도 맞서는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도전하고 실패하면서도 계속 나아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활동 소감

▶ 종합 의견

영글클럽을 진행하면서 서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함께 영화를 보고 영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활동을 통해 팀원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 영화에 대해 팀원들이 각자 적은 감상문을 돌려 읽으면서 서로 다른 시선으로 영화를 본 점이 재미있다고 느꼈다. 영화에 대해 토론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사람마다 보는 시선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그것을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새로운 시각으로 영화를 다시 한번 바라 볼 수 있던 시간이었다. 또한 평소에 도전하지 못했던 분야의 영화를 보고 팀원들끼리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영글클럽 소모임을 진행하면서 영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볼 수 있고, 그것을 공유하면서 문화적 소양을 더욱 기를 수 있던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활동 사진



제20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4학년도 2학기 학습법 소모임 [영글클럽]



우수팀 명

누워서 필름속으로

학습 내용

영화감상 및 감상평 공유

학습 기간

24. 11. 18. ~ 12. 2.

팀 원

이인기, 서종우, 서하민, 이윤상,
조창범, 심규범(약학과 23)

학습 일자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1/19	15:00~19:00	과학관 103호	영화 <세븐>을 관람 후 일상에서의 무관심과 타인에 대한 냉정함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우리 소모임에서는 이 영화는 현실에서 우리가 얼마나 냉정하게 일상을 살고 있는지를 시사하는 영화였다고 종합적인 소감을 가졌다.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냉정함은 결과적으로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자각하고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함을 느끼게 해줬던 영화였다. 우리 소모임의 첫 활동이었던 것만큼 아직까지는 소모임 내에서 토론의 주제 선정이나 토론 의견 제시가 원활하게 되지 않은 것 같다. 앞으로는 토론 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순서대로 문도록 노력해야겠다.
11/29	16:00~18:00	과학관 103호	영화 <판의 미로>를 관람 후 결말 부분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영화감상 소모임을 통해 우리는 감독이 유도한 결말에서 서로다른 해석을 내고 그에대해 토론하며 영화 등장인물의 감정과 상황에 대한 심오한 고찰을 진행하는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가치관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면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다른사람의 관점을 수용하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었다. 앞으로의 소모임에서도 영화감상과 토론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12/2	19:00~21:00	과학관 103호	영화 <시카고>를 관람 후 미디어의 영향력, 허영심과 명성 및 정의와 부패 세가지 토론 주제를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영화감상 소모임을 통해 우리는 영화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풍자적인 메시지를 이해해보고, 이에 대한 열정적인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을 통해 우리는 서로 추구하는 가치관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고 사람은 모두 조금씩은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영화나 예술이 아름다운 이유는 같은 장면을 보고 개개인마다 해석이 다르고, 이러한 해석을 공유하면서 세상에 대한 생각을 넓힘과 동시에 삶에 대해 조금 더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인 것 같다. 다만 이번 3차 활동에서 관람한 <시카고>의 경우 뮤지컬 영화였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활동에도 뮤지컬 영화를 관람한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회차별 감상평

1차	많은 팀원들이 <세븐>에 대한 긍정적인 감상문을 작성하였다. 많은 팀원들이 영화의 주제인 '죄악'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철학적인 성찰을 시키는 영화가 인상 깊다고 언급하였다. 대부분의 팀원들은 이 사회가 현대 사회에 대해 던지는 메시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2차	대체적으로 많은 팀원들이 <판의 미로>에 대한 긍정적인 감상문을 작성하였다. 많은 팀원들이 영화의 시각적인 부분에 대해 인상 깊다고 해주었으며 다양한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열린 결말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3차	우리는 영화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풍자적인 메시지를 이해해보고, 이에 대한 열정적인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을 통해 우리는 서로 추구하는 가치관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고 사람은 모두 조금씩은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만 이번 3차 활동에서 관람한 <시카고>의 경우 뮤지컬 영화였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활동 소감

▶ 종합 의견

많은 팀원들이 공통적으로 영화를 함께 관람하고 영화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과 성찰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계기였다고 말하였다. 10전공이라는 힘든 학기에서 잠시나마 공부에서 멀어져 영화를 관람하면서 자신을 돌아켜보고 세상에 대한 성찰도 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준 영글클럽에 참여하길 잘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한 팀원은 다음 학기에도 무조건 영글클럽 활동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이에 나머지 팀원들 역시 동의하며 다음에도 이번 학기처럼 좋은 영화를 선정하여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활동 사진



제20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4학년도 2학기 학습법 소모임 [비교과스터디]

우수

우수팀 명

템스에 갇힌 새

학습 내용

TEPS

학습 기간

24. 10. 26. ~ 11.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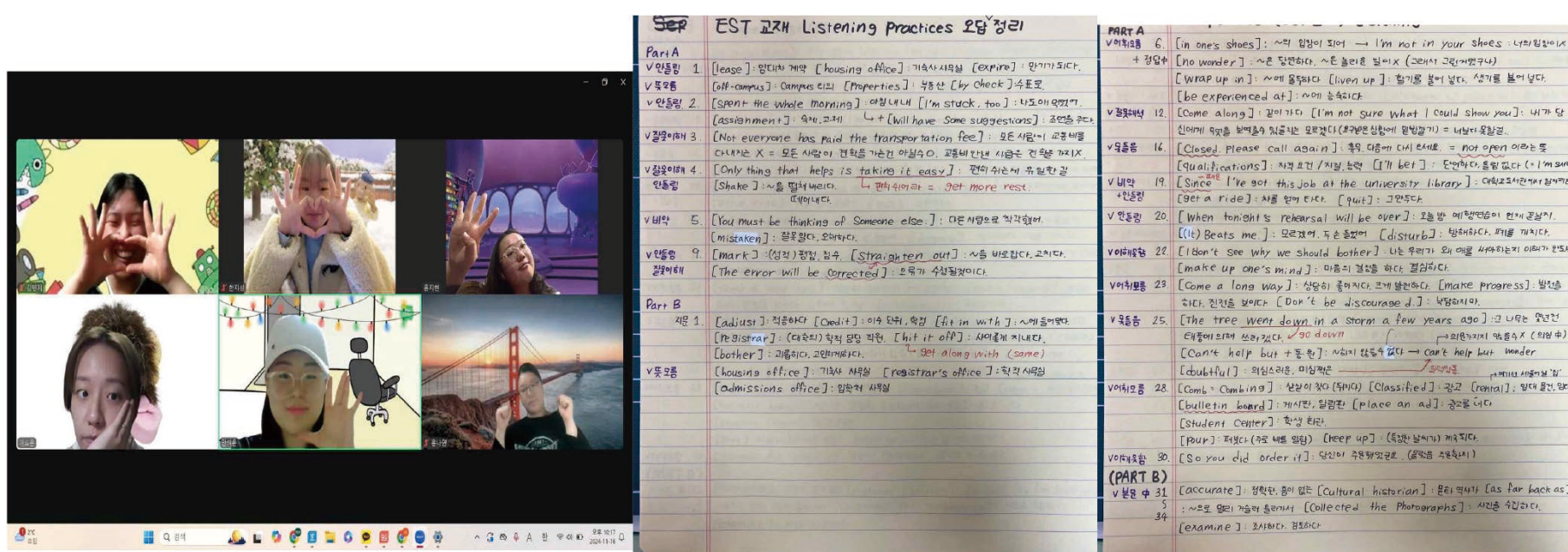
팀 원

윤지현, 김민지, 안해운, 이소은,
윤나연, 한지성 (의생명과학과 21)

학습 일자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0/26	20:04~22:05	ZOOM	VOCA 연습 : 일주일치의 Day1 ~ Day 7까지의 VOCA를 암기 해온 뒤 해커스 보카 영 단어 문제 사이트를 이용하여 각자 단어 문제 풀이를 수행하였다. 해커스 보카 영 단어 문제 사이트는 각 Day 별 10가지의 문제를 선별하여 무작위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용에 용이하고 짧은 시간 내에 영 단어 암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생략)
11/2	20:06~22:09	ZOOM	TEPS 문제 풀이 후 오답 풀이 공유 : 제한 시간 내 독해와 청해 문제를 풀이한 후, 오답에 대해 해석과 청취 오류를 분석했다. 청해 문제에서는 함정 문항을 파악하며 듣기 실수 패턴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하였다. (생략)
11/9	20:01~22:10	ZOOM	(생략) 낯시 문제, 지문 파악 : 실제 시험 환경을 모의하여 시간을 설정한 뒤 모의고사를 풀이하였고 스터디원들과 정답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특히, 함정 문항과 빠르게 지나가는 정보들에 주목하며 정답률을 높이기 위한 청취 전략을 논의하였다. 모의고사 이후, 주요 패턴과 문제 유형을 정리하여 각자의 학습 계획에 반영하였다.
11/16	20:11~22:17	ZOOM	(생략) 개인별 시험 준비 전략 수립 : 이번 스터디의 마지막 활동으로, 각 참여자가 시험 전까지 실천할 학습 계획을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았다. 특히, 어휘 암기와 독해/청해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논의하며 개별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였다.

활동 사진



활동 소감

▶ 종합 의견

해커스 보카와 TEPS 문제 풀이를 확장하여 한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특히, 단어 암기와 문제 풀이를 포함하는 것과 동일한 힘과 문제 해결 능력을 동시에 강화시킬 수 있었으며, 킬러 문항과 오답 원인 분석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여 자신의 약점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실제 시험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정해진 시간안에 문제를 푸는 등 실전과 가까워지도록 노력했다. 어휘 암기뿐만 아니라 단어의 활용도와 문맥을 익히려는 노력이 돋보였으며, 이는 장기적인 영어 실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였다.

다만, 토익과 TEPS는 시험 유형과 난이도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TEPS 중심의 학습 전략이 토익과도 얼마나 유사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다. 예컨대, 토익은 TEPS보다 실용적인 영어 표현과 비즈니스 중심의 어휘와 문장이 강조되므로 이를 보완하는 학습이 필요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활동은 영어 시험 준비에 매우 효과적이었다.

▶ **윤지현** : 모의고사 형식으로 시간을 제한하며 문제를 풀이한 후 분석했던 과정이 실천 대비에 효과적이었다. 평소에는 지나치기 쉬운 낯시 문항이나 함정 표현들을 정확히 파악하며 문제 풀이 속도가 빨라졌다. 어려운 단어를 논의하며 문장 속에서 활용법을 익힌 점도 기억에 남는다. 개인적으로 청해 문제가 약점이었는데, 함정 문항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는 연습이 큰 도움이 되었다.

▶ **한지성** : 문제 풀이를 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려운 단어를 예문과 함께 학습한 것이 기억에 오래 남았고, 청해 문제에서 세부 정보를 놓치지 않는 법을 연습한 것이 특히 도움이 되었다. 이번 스터디를 통해 템스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다음 시험에 더 자신감 있게 임할 수 있을 것 같다.

▶ **이소은** : 템스를 여러 번 공부한 경험이 있지만, 이번 스터디는 특히 시험 준비를 체계적으로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어려운 독해 지문과 심화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한 학습이 시험의 고난도 문제를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낯시 문항이나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스터디원들의 팁과 전략을 공유하면서 평소에 간과했던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었다. 스터디를 통해 템스 공부가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발전한 것 같아 만족스러웠다.

▶ **윤나연** : 이번 스터디 활동은 기존 학습 방법을 보완하고 새로운 전략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각자의 오답 풀이 과정을 공유하면서 자신만의 문제 풀이 방식과 논리적 접근법을 점검할 수 있었다. 이전에는 암기 위주의 학습에 치중했는데, 예문을 작성하며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청해 문제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세부 정보를 캐치하는 훈련이 특히 유익했으며, 앞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을 배웠다.

▶ **김민지** : 스터디를 통해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다. 어휘 암기뿐만 아니라 단어를 문맥 속에서 활용하는 연습을 하면서 단순히 외우는 것을 넘어 실력을 쌓을 수 있었다. 특히, 청해와 독해 문제를 풀이하면서 집중력을 키우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익혔다. 낯시 문항과 오답 원인을 분석하며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연습은 앞으로 더 다양한 시험 유형에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 **안해운** : 템스를 처음 공부하면서 스터디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특히, 해커스 보카를 활용한 단어 암기와 문제 풀이가 효과적이었다. 짧은 시간 내에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어려운 단어를 함께 논의하면서 기억에 더 잘 남았던 것 같다. 토익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낯시 문항이나 지문을 분석하며 실수를 줄이는 법을 배운 점은 템스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처음이라 막막했지만, 모의고사 환경에서 실제 시험처럼 연습한 경험은 앞으로의 시험 준비에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제20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4학년도 2학기 학습법 소모임 [비교과스터디]



우수팀 명
밤샘전문가 협회

학습 내용
TO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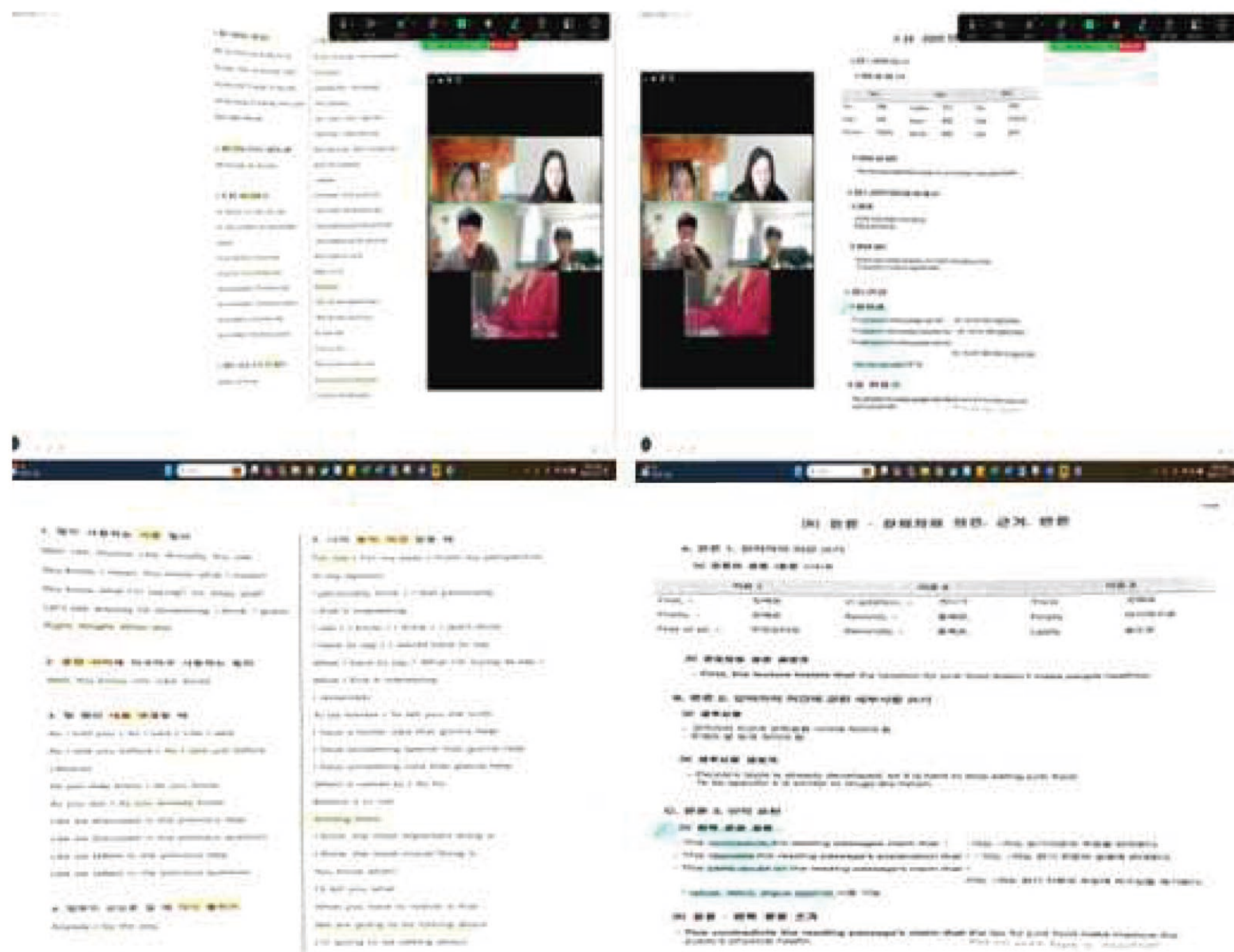
학습 기간
24. 10. 28. ~11. 25.

팀 원
안예빈, 이주희, 신영채(AI보건의료학부 20),
김유성(AI보건의료학부 22),
정우용 (식품생명공학과 20)

학습 일자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1/11	18:00~20:00	도서관 그룹토의실	1. 기본 빈출 어휘 50개 학습 및 단어 시험 2. LC/RC 파트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본 단어를 이해
11/18	18:00~20:00	도서관 그룹토의실	1. 비즈니스/회사 관련 어휘 50개 학습 및 단어 시험 2. 단어별 예문 만들기 3. 상호 피드백 및 간단한 단어 퀴즈 진행
11/27	19:30~21:30	ZOOM	1. 복합명사/숙어 표현 50개 학습 및 단어 시험 2. 복합명사 및 숙어의 문장 속 활용 예시 설명
12/4	19:42~21:51	ZOOM	1. 실전 모의 단어 시험 (총괄) 및 피드백 2. 소모임 이후 자율 복습 계획 수립

활동 사진



활동 소감

▶ 종합 의견

이번 비교과 스터디는 단순한 토익 학습을 넘어 영어 실력 향상과 학습 습관 형성에 있어 큰 의미가 있었다. 스터디원들은 정기적인 학습과 피드백 과정을 통해 각자의 약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영어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어휘력과 문제 해결 능력, 실전 감각을 키우는 동시에 새로운 관점과 학습 방법을 공유하며 배움의 즐거움을 느꼈다. 특히 서로 다른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며 정답의 근거를 탐구하는 과정은 영어 학습뿐 아니라 논리적 사고력과 협업 능력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개인적인 학습에서는 얻기 어려운 성취감을 팀워크를 통해 경험하며, 꾸준함과 목표 의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번 스터디를 통해 얻은 자신감과 성과를 바탕으로, 스터디원 모두가 앞으로도 영어 실력 향상과 더 큰 목표를 위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 **안예빈** : 본 스터디를 통해 단순히 토익 점수를 올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어 비즈니스 어휘와 표현을 익혀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다. 팀원들과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개인별 취약점들을 보완하고, 영어 실력이 조금씩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스터디 활동의 노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영어 능력 향상에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이주희** : 4주간 진행된 비교과 스터디를 통해 동기들과 함께 토익 단어를 외우고 문제를 풀며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과 매주 반복되는 학습 과정을 통해 꾸준함의 가치를 다시금 깨달았다. 혼자 공부할 때 느꼈던 막막함이나 지루함이 스터디를 통해 훨씬 줄어들었고, 서로 격려하며 작은 성과에도 기뻐할 수 있었다. 또, 문제 풀이 후 진행된 피드백 시간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생각을 정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 **신영채** : 토익 소모임을 통해 정기적으로 학습하면서 꾸준히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었다. 매 회차 다양한 단어와 문제를 다루며 어휘력과 실전 문제 해결 능력이 점차 향상되는 것을 느꼈다. 특히 팀원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학습 방법도 배울 수 있었다. 시험 형식의 문제 풀이와 분석은 실전 감각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분위기 덕분에 혼자 공부할 때보다 훨씬 집중할 수 있었다.

▶ **김유성** : 비교과 스터디를 통해 TOEIC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복합명사와 숙어를 학습하며 문제 풀이 속도와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 특히, RC 파트에서 문장의 의미를 빠르게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영어로 의사소통할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다. 단어를 반복 복습하면서 기억이 오래 유지되었고, 이를 문제 풀이에 적용하며 독해력과 문법 이해도가 향상되었다. 시험 형식 학습으로 실전 감각과 시간 관리 능력을 익혔고, 자율 복습 계획을 공유하며 목표 의식을 갖고 학습할 수 있어 유익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시험 준비뿐만 아니라 영어 실력을 꾸준히 발전시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 **정우용** : 이번 학기에 진행한 토익 비교과 스터디는 많은 배움과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스터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한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공유하며 정답의 근거를 탐구하는 토론 시간이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시선을 다른 팀원들에게 설명해 주고,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어휘와 표현들을 배울 수 있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학습하며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다짐했다.

제20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4학년도 2학기 학습법 소모임 [비교과스터디]



우수팀 명

바이오늘

학습 내용

연구 활동

학습 기간

24. 10. 30. ~ 11.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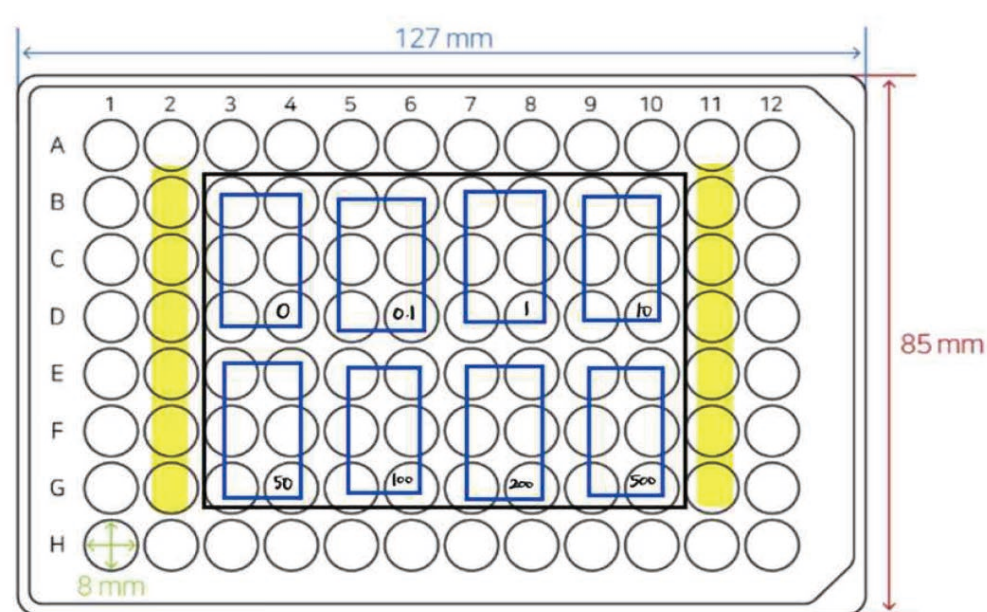
팀 원

오유선, 유수빈,
윤예은(바이오식의약학 23)
이동훈(바이오공학과 21)

학습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0/30	18:00~19:00	미래관	cell culture protocol 숙지
11/1	18:00~19:00	차바이오 컴플렉스	cell thawing 진행 및 실험 중 주의해야할 점 숙지
11/6	18:00~19:00	미래관	MTT assay protocol 공부
11/11	18:00~19:00	차바이오 컴플렉스	MTT assay 진행 및 원리 발표
11/27	18:00~19:00	미래관	MTT assay 데이터 분석

활동 사진



활동 소감

▶ 종합 의견

본 연구에서는 Astaxanthin이 면역 대식세포인 RAW 264.7에서 염증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RAW 264.7 세포를 thawing 하고, sub culture과 hemocytometer를 통한 세포 Count를 통해 세포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 후 MTT assay를 실시하여 Astaxanthin의 세포 독성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농도로 아스타잔틴을 처리한 결과, 500 μ M에서만 세포 독성이 확인되어 해당 농도를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단계로, LPS를 처리하여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유도하고 아스타잔틴의 항염증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MTT assay를 통해 세포 생존율을 평가한 뒤, Griess assay와 ELISA를 통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는 아스타잔틴이 세포에 안전한 농도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식세포에서의 항염증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특히, Griess assay에서 아스타잔틴의 농도가 200 μ M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고, 결국 아스타잔틴이 대식세포에서의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을 향후 실험에 기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스타잔틴이 염증성 질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밝히는데 중요한 연구가 될 것입니다.

▶ **오유선** : 면역 대식세포 및 염증물질 분비세포를 이용한 염증성 질환 연구 팀 활동은 팀원들과의 협동심을 키워 향후 연구에서 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 실험을 하며 실험 protocol을 이해하고 각 시료들의 첨가 이유와 실험 원리들을 배우며 연구를 계획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 **유수빈** : 아스타잔틴이 면역 대식세포인 RAW 264.7에서 염증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깊었다. 실험 과정에서 세포 상태를 확인하고, MTT assay를 통해 세포 독성을 평가하는 단계는 연구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경험이었다. 특히, 다양한 농도의 아스타잔틴을 처리하면서 500 μ M에서만 세포 독성이 나타났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아스타잔틴의 안전한 농도를 설정하는 데 중요 바탕이 되었다. 그리고 LPS를 통한 염증 유도와 아스타잔틴의 항염증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은 매우 흥미로웠다.

▶ **이동훈** : 이번 소모임을 통해 RAW 264.7 세포를 이용한 염증성 질환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실험 기법을 익힐 수 있었다. 세포 배양과 계대 배양, Trypan blue 염색을 통한 세포 수 측정, MTT assay를 이용한 세포 생존율 평가, Griess assay와 ELISA를 통한 항염증 효과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여러 실험 기법과 실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유익한 경험이 되었다.

▶ **윤예은** : 이번 실험을 통해 면역 대식세포 RAW 264.7를 이용한 염증 반응 연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스타잔틴의 농도별 처리를 통해 세포 독성과 항염증 효과를 평가하면서,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세포 관리와 정확한 실험 기법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또한 팀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실험 설계와 데이터 해석을 함께 하며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번 경험은 연구자로서의 세심함과 책임감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더 발전된 실험 설계와 결과 도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20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4학년도 2학기 학습법 소모임 [비교과스터디]



우수팀 명

삼차삼차

학습 내용

프리미어 프로 실습

학습 기간

24. 11. 19. ~ 12. 16.

팀 원

김가은, 정우현,
이서연(미래융합대학 23)

학습 일자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1/19	16:00~18:00	미래관 603호	미래관에 모여 아이스브레이킹을 했다 이전에 프리미어 603 프로나 다른 편집어플을 사용해 본적이 있는지 본인의 영상 편집 실력을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이야기하면서 본인 그리고 서로의 실력을 확인 해보고 소모임의 난이도를 어느 수준으로 정할 지 상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11/26	16:00~18:00	미래관 603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초 프리미어 프로 지식을 실제로 영상 편집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컷 편집만으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유튜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우바'의 영상처럼 영화 리뷰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렇기에 최근 영화가 아닌 것 중에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를 하나씩 선정하여 영화 리뷰를 제작하였다.
12/3	16:00~18:00	미래관 603호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여 드라마 쇼츠를 직접 촬영하고 편집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자 선택한 드라마의 한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컷편집 음향 자막 삽입까지 모두 해보는 실습을 진행하였다 편집은 모두 각자의 기기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12/16	21:44~23:44	ZOOM	자신이 선택한 레퍼런스 영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상을 기획 촬영 편집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존의 드라마 장면을 재현하던 활동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각자의 레퍼런스를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면서 기획력과 기술력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학우들은 광고와 브이로그라는 서로 다른 형식을 통해 다양한 영상 기법을 적용하고 개성을 표현하는 데 주력했다.

활동 사진



활동 소감

▶ 종합 의견

이번 소모임 활동은 영상 제작의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큰 보람을 느끼는 동시에 몇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영상 제작 과정은 단순한 촬영을 넘어 기획, 촬영, 편집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모임 내에서 주어진 시간만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온전히 소화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기획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스토리보드를 구성하는 작업만으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고, 촬영과 편집까지 진행하려면 소모임 시간 외에도 추가적인 개인 시간을 활용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시간 관리가 다소 벅차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장비 문제도 제작 과정에서 큰 장애물로 작용했습니다. 교내에서 제공되는 장비가 한정적이어서 원하는 대로 촬영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장비 사용 순서를 조율하거나 부족한 장비로 대체 방법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촬영 일정이 지연되거나 기대했던 퀄리티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모임 활동을 통해 느낀 성취감은 매우 컸습니다. 영상이 완성되었을 때, 기획부터 최종 결과물까지의 모든 과정을 돌아보며 내가 만든 결과물에 대한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영상 제작은 자신의 창의력과 감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기에 이번 활동은 각자의 역량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협업의 중요성도 체감할 수 있었고, 각 팀원이 가진 강점을 발견하며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김가은 : 이번 소모임을 통해 프리미어 프로라는 어플을 처음 사용했으며, 영상 제작을 제대로 해본 적은 처음이어서 잘 만들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동기들과 함께 차근차근 기초부터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유튜브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영상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소모임을 통해 영상 진입장벽이 낮아졌고 영상을 더 능수능란하게 제작할 수 있게 되어서 뜻 깊은 소모임이 되었습니다.

▶ 정우현 : 이번 활동을 통해 영상에 대한 지식을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부터 해서 촬영, 편집까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프리미어 프로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영상에 대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기초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이서연 : 이번 소모임 활동을 통해 프리미어 프로의 다양한 기능을 익히고, 영상 편집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컷편집, 색상 보정, 다양한 효과 적용 등 프리미어 프로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었으며 직접 촬영하고 배경의 색감을 맞추는 등의 다양한 편집을 통해 영상 제작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프리미어 프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었고, 앞으로의 영상 편집 작업에 큰 도움이 될 기회를 준 이번 소모임 활동은 저에게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20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4학년도 2학기 학습법 소모임 [비교과스터디]



우수팀 명

프시케

학습 내용

학술제 준비

학습 기간

24. 10. 18. ~ 11.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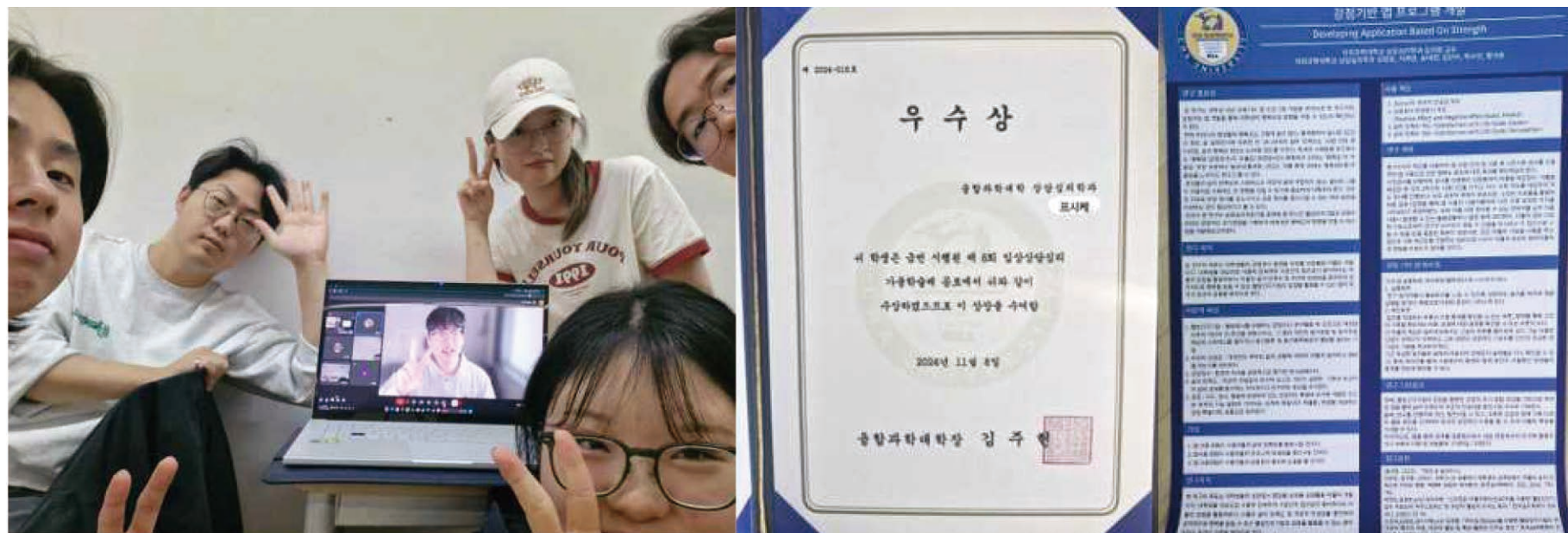
팀 원

김정호, 서채연, 송대한(상당심리 20, 22)
김민수, 박수빈, 황석준(미래융합대학 23, 24)

학습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0/18	16:07~18:15	Google meet	주관적 안녕감과, 긍정정서, 삶의 만족도, 강점과 같은 연구의 주요 개념 재정리와 개념간의 관계 탐구 재실시 했다. 상호 질문을 통한 이해 함양을 촉진하고 보고서의 오탈자 검수를 진행했다.
10/29	16:19~18:30	Google meet	연구에서 사용하기로한 척도 'Diener의 주관적 안녕감 척도, PANAS(긍정 부정정서 척도), Diener와 Fairweather의 삶의 만족도 척도 (SWLS)'의 사용 시 유의할 점(사전 사후비교의 텀, 유의해야 할 노이즈 등)과 위 척도들을 사용하게 된 이유를 다시 정리하며, 기존의 기대효과들에서 새로운 기대로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10/31	16:20~18:30	Google meet	발표 PPT와 원고 제작을 위해 자료를 다시 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리 준비해뒀던 PPT를 수정해가며 슬라이드의 순서, 폰트의 위치 등 가독성과 발표 대사와의 흐름에 유의해서 진행했고, 최대한 보고서와 유사한 흐름의 PPT완성을 위해 노력했다. PPT의 완성 이후 발표자들은 이에 맞춰 대사들을 조금씩 수정하고 나머지 인원들은 오탈자 검사를 과제로 받았다.
11/7	17:15~19:18	Google meet	학술제 전일 발표자 두 명이 팀원들 앞에서 리허설을 하며 최종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가 끝난 이후 각자의 피드백을 들으며 역량, 속도, 강세뿐만 아니라 대본의 길이와 단어의 선택 등이 다양한 부분의 수정을 통해 다시 2차, 3차 리허설을 진행했다. 리허설 이후에는 다 같이 둘러 앉아 준비해둔 예상질문들에 질답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활동 사진



활동 소감

▶ 종합 의견

학술제가 바로 11월에 있어 꽤나 촉박한 시간이었지만 전반적으로 꽤나 만족스러운 활동이었습니다. 각자가 서로의 시간을 배려하여 활동시간을 조율하고 상호간의 피드백을 통해 발전해나가는 모습이 가시적으로 확인이 됐기에 팀원으로서의 협동심도 올라가고 학술제 발표의 질도 올라가는 순환의 고리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이후 학술제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올해의 학술준비 활동이 공식적으로 종료됐지만, 이번 학기에는 연구 계획으로 참여한 것이기에 다음 해에 실제로 이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생각입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이번 학기 활동의 대부분을 상호 피드백 위주 활동으로 진행하다보니 효과는 좋았지만 시간 또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스터디 때는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더욱 압축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정호** : 함께 1년간 같이 고생해준 팀원들과 너무 값진 경험을 했고, 결과적으로 학술제 발표라는 처음의 목표도 달성하여 성공적인 한해를 보낸 것 같다. 항상 후배로서 선배들의 서포트를 하며 활동했었는데 처음으로 선배가 되어 후배들을 리드하니 어색한 부분도 많았다 하지만 후배들도 항상 서로를 잘 챙겨주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해줘서 큰 어려움이 없이 2024년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는 더욱 열심히 활동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다.

▶ **서채연** : 함께 논문을 찾아보고 리뷰 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특정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하며 최종적으로 학술제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발표할 수 있었다. 다 같이 한 뜻으로 무언가에 몰두하는 경험은 쉽게 할 수 없는데 이 활동을 함께 하며 끝없이 몰두해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어 정말 좋았다. 그 결과로 학술제에서도 수상을 할 수 있었고 값진 한 해를 보낸 것 같다.

▶ **송대한** : 이번 소모임 활동을 통해 학술제 준비를 좀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술제 준비를 위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발표를 할지, 발표 중 예상 질문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등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했었는데 소모임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정해서 하다 보니 집중도 더 잘할 수 있었고 그만큼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참여하여 각 활동을 더욱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계획하여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 **김민수** : 딱 1년 전에 '나는 학술제 언제 나가보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학술제 발표에 올라서게 되니 새삼 꿈에 다가가고 있다는 게, 실감되고 또 미용으로서 처음 학술제 발표한 사람으로서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 **박수빈** : 프시케 활동을 하면서 임상심리 학술제에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학술제를 참여하면서(심리학에서 여러 가지의 요소를 배우고 활용해나가는 모습을 앞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제게 전환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심리'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영역을 다루어 보면서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삶의 만족과 긍정 정서를 파악하고 변인간의 관계를 찾아보면서 최근 대두된 긍정심리학이 여러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현재 사회에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습 활동 소모임을 통해 무전공인 1학년 동안 심리학이라는 전공을 심화하여 알 수 있었고, 앞으로도 심리학 전공생으로서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성장이 필요한지 알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 **황석준** : 지난 학기도 소모임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이번 학기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또한 선배들이 잘 이끌어주신 덕분에 헤매지 않고 이번 학기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술제를 통해 좋은 추억과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올해 가장 보람찬 활동이었습니다.

제20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4학년도 동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우수팀 명

차근차근

학습 내용

전공심화 스터디

학습 기간

25. 1. 6. ~ 1. 12.

팀 원

임나경, 김시연,
박소현(미술치료학과 21)

학습 일자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6	20:30~22:39	Google meet	- 인지발달 워크북 개발 대상자 확정 : 경도 지적장애 아동 - 경도 지적장애의 전체적 특성 및 인지적 특성 학습 - 워크북 제작 목적 확립 - 인지발달 워크북 컨셉 및 스토리 회의 진행
1/7	19:30~21:33	Google meet	- 워크북 '친구가 방학 숙제 좀 도와줘!' 제작 역할 분배 - 계절별 워크북 활동 제작 - 피드백을 통한 워크북 수정 및 보완 - 미술치료학과 교수님과 유아교육 전공자에게 피드백 요청
1/12	18:46~20:53	Google meet	- 워크북 피드백 나눔 - 피드백을 바탕으로 수정할 점 및 고찰 나눔 - 제작한 워크북 시연

활동 소감

▶ 종합 의견

소모임 팀원들과 함께 장애아동을 위하여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인지발달 워크북'을 제작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2024학년도 동계방학 학습법 소모임을 통하여 장애아동의 이해 과목에서 배웠던 것을 토대로 워크북을 제작해볼 수 있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워크북의 대상과 대상의 인지적 특성, 워크북의 목적을 정하는 과정에서 경도 지적장애 아동에 대한 깊은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지발달이라는 세부 발달 특성을 학습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인지발달 워크북을 만들기 위해 기존 워크북을 찾아보고 우리 소모임만의 구성과 컨셉, 주의점 함께 정하는 과정에서 혼자라면 나올 수 없을 다양한 의견과 방법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며, 더욱 알차고 다양한 활동을 구성한 워크북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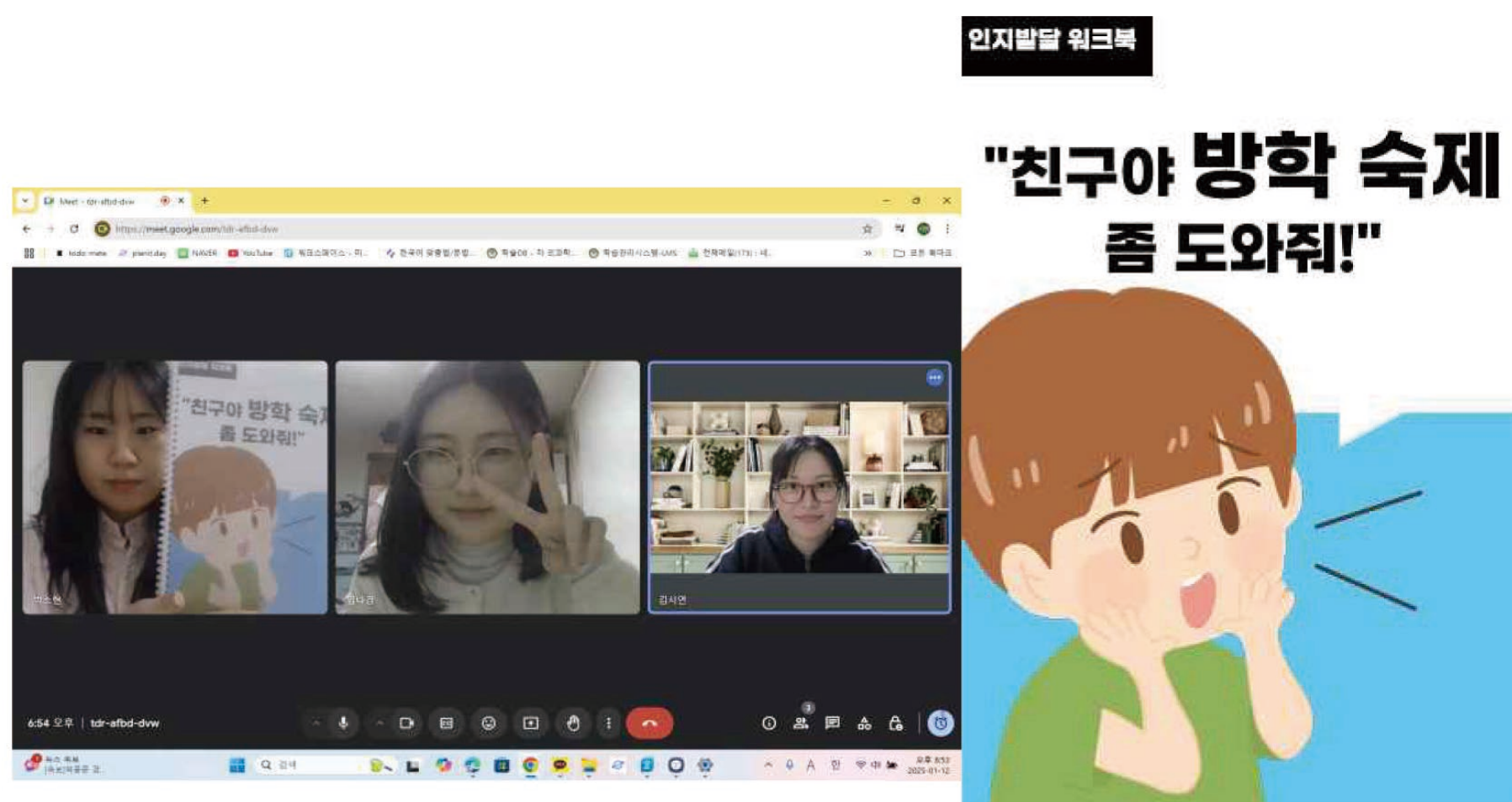
소모임 활동을 통하여 혼자 학습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다양하고 많은 사람과 의견을 나누고 피드백을 나누면 더욱 좋은 아이디어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토대로 소모임 과정에서 교수님과 타 전공 사람의 피드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은 저희가 한 층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소모임 활동을 통하여 저희는 다양한 시각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예비 미술치료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 **임나경** : 이번 소모임을 진행하면서 장애아동에게 인지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관해 연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특히, 지적장애 아동의 발달 과정과 정의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이러한 아동들에게 직접 기대효과를 구성하여 미술인지워크북을 제작한 점이 가장 뿌듯하고 흥미로웠습니다. 워크북 제작을 나아가 팀원들 서로에게 시연해 보고, 전문가들에게 워크북의 장점과 수정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팀원과 결과물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학습하는 소모임이 아니라, 직접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시연하는 과정을 통해 높은 성취감과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스스로 성장하는 하나의 자료를 만들어 주었기에 높은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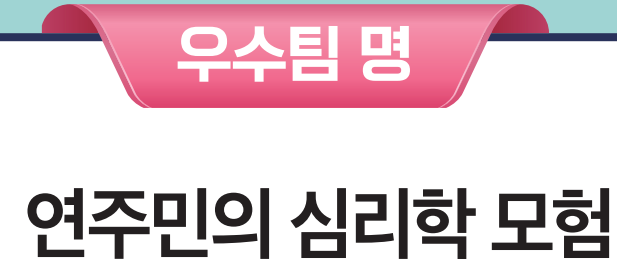
▶ **김시연** : 함께 논문을 찾아보고 리뷰 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특정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하며 최종적으로 학술제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발표할 수 있었다. 다 같이 한뜻으로 무언가에 몰두하는 경험은 쉽게 할 수 없는데 이 활동을 함께 하며 끝없이 몰두해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어 정말 좋았다. 그 결과로 학술제에서도 수상을 할 수 있었고 값진 한 해를 보낸 것 같다.

▶ **박소현** : 소모임을 하며 장애아동의 인지적 특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 관심 있었던 인지치료와 미술치료를 접목하여 워크북을 만들어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었고 인지치료와 미술치료의 차이점, 공통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활동이 무엇인지,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적절한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 있었고, 개인이 아닌 소모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소모임을 통해 워크북이 제작되는 결과물이 나와 뿌듯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서도 큰 자양분이 될 것 같습니다.

활동 사진



2024학년도 동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우수팀 명

학습 내용

전공심화 스터디

학습 기간

25. 1. 13. ~ 1. 16.

정의

김민주, 김주리,
정연수(미술치료학과 20)

활동 소감

▶ 종합 의견

두 번째 저희 팀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중심으로 무의식과 심리적 갈등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이드, 자아, 초자아 간의 갈등이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형성한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꿈 분석과 자유 연상 기법을 통해 무의식의 메시지를 탐구하는 방법을 배운 것은 미술치료와 상담심리학을 전공하는 저희에게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법들은 치료 과정에서 내담자의 내면을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생략)

▶ **김민주** : 이번 소모임은 심리학의 다양한 이론과 실제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특히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중심으로 무의식과 심리적 갈등을 탐구하는 과정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드, 자아, 초자아 간의 갈등이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형성한다고 배운 것은 미술치료를 전공한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술치료에서 내담자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은 심리적 갈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꿈 분석과 자유 연상 기법을 통해 무의식의 메시지를 탐구하는 방법도 배워, 이러한 기법들이 치료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생략)

▶ **김주리** : 이번 소모임은 심리학의 기초와 다양한 이론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
가 되었습니다. 구조주의, 기능주의, 행동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심리학을 통해 각 이론이 인
간의 사고와 행동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논의한 부분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프로이트의 이론을 통해 무의식의 역할과 심리저 갈등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
었던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통찰은 상담심리학을 복수전공하는 저에게 내담자의 심
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종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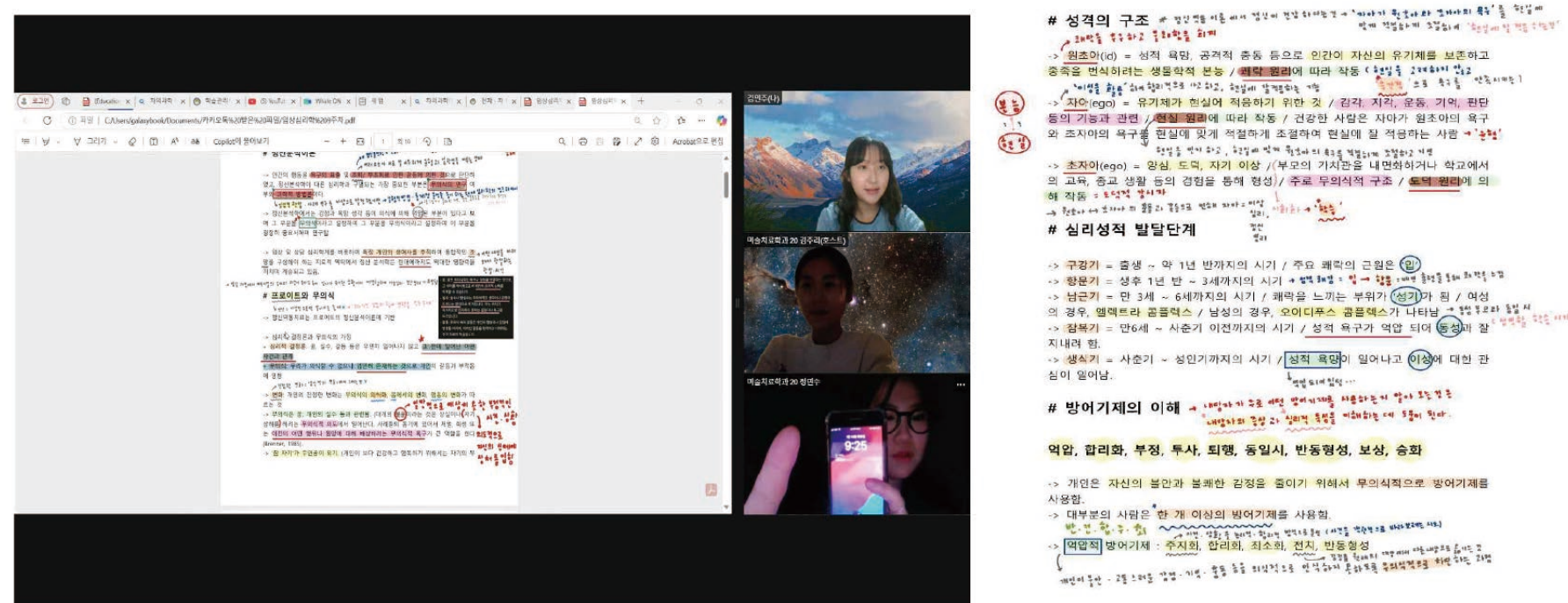
특히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 것이 매우 유익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이상심리학' 전공 수업 때 가장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인데, 팀원들과 함께 꿈 분석
과 자유 연상 기법을 통해 무의식의 메시지를 탐구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이러한 기법들이 상
담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심리장애에 대한 논의는
각 장애의 특성과 치료 방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인지행동치료와 약물치료, 대
체요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도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생락)

▶ **정연수** : 이번 동계방학 학습법 소모임을 통해 심리학의 기초와 다양한 이론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었던 점에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첫 모임에서는 심리학의 역사적 발전과 각 이론의 기초를 살펴보면, 심리학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이론적 배경을 통해 심리학의 폭넓은 영역을 탐구하는 기회를 가졌고, 특히 각 이론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논의해 보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중략)

이번 소모임을 진행하면서 팀장으로서의 역할도 느끼게 되었고, 팀원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배우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팀원들이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가 서로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전공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그로 인해 심리학적 이론을 실제 사례와 연결하는 논의는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팀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학습을 돕고,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생략)

활동 사진



※ 자세한 내용은 『2024학년도 2학기 학습법 소모임 우수사례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